朝
48
18

帝國圖書館藏
昭和3.9.20
古 3715
帝國圖書館藏

朝古
48
18

朝鮮總督府圖書館藏

제하에서 전지시보로
한국에 위유운동
제국의 은혜 한국이 면하시 빈국 중흥 하시니
대강 은혜지라 신의 어진 수성 중흥 보전 제해 거듯 운동의 뜻
시면 강희 십육년 사십 오년이라 대청의 현제 수시 중흥
야 중서 사십 년의 각 국 깃발 꽂아 빈성의 중흥을 보니
이시니 제해 어가 중 명 운동에 운동의 가 국 시는 제 국 중흥
서세의 왜 중시 중서의 중 순 중 세의 나 중지 아니 중 이시
면 장 국 중 명 운동에 명 중서 수 해 제 제 수 시면 한 신이 제 한의
동 중의 가 시 중 중 시 거 성의 나와 거 가 중 기 중 시 거 시 밭 중
세 중 일 중 에 제 해 국 중 운 에 국 성 중 중 시면 이 중 중 명 중이 일 중

수의공이와 장수와 수수를 슈고들이 온 아 씨 호부 를 설 흐 ㄴ
곤 난지 이 수 되 이 가 대 령 의 달 을 두 두 심 히 기 거 이 에 들 서 를 노 시 와
동 노 제 로 의 게 곤 온 아 글 오 쉬
것 이 경 은 주 년 동 십 이 월 의 거 개 운 동 의 기 제 옥 를 뵈
회 로 뵈 러 빵 을 들 리 서 빅 성 들 보 와 수 방 즉 옥 으 를 생 ㅏ
년 년 을 일 주 ㅏ 현 하 의 빈 로 저 주 ㅏ 빵 이 로 ㅏ 로 지 아 신 들 제
이 시 면 장 주 를 명 을 여 준 주 를 거 노 ㅏ 기 정 면 로 수 ㅏ
ㅏ 중 의 ㅏ ㅏ
대 이 에 실 수 조 신 를 거 수 ㅏ 로 한 양 을 서 수 길 제 의 ㅏ 로 ㅏ 성
조 회 원 들 중 이 동 노 로 부 터 한 대 를 뜻 ㅏ ㅏ 한 신 대 의 조 서 를
볼 지 수 로 ㅏ 의 로 수 여 글 오 리 전 이 로 의 수 해 면 수 아 날 오 리 한

제세의 중니의 중에 중에 중을 이니 사람이 중중에 나중을 해
중에 중에 중에 중니의 중이 일중에 에 이에 중을 맞으라 중
되 신앙중에 중니의 중에 중에 해지 못중 에니 신앙지
아니 제 중중의 나라 중중에 중에 나의 중니의 중에 신을
일중 에 중중이 이중 가 이신중의 라 중중에 중에 의 말중지 중아
니 제 중 보니 에 이 제 이 신앙을 중중 사중의 일중을 맞은 말중지
못중 라 중 중 이 에 리 리 지 이 중니 의 중 보중 하 제 에 중중의
나중 중니 중 중 중중 오리 제 제 이 중중 일 은 제 일중 에 보 리 은
중중 중 의 신중 에 니 중 못 제 제 이 중중 보 이 니 라 신중
제 제 중 이 니 중 니 라 이 제 중 리 중 중 에 제 제 에 중 제 니 의 리 중
중중 에 니 보 중 이 중 에 중 이 중 이 라 제 제 리 신중 원 중 지

못 돌아가 뒤 일장 그이 가지 아니 돌아 스스로 오늘날
을 그릇되고 그라 주이 나 날이 못 돌아 서 주시장 그로 주
이 되니 적이 그대 말이 장 그을 주이 이 아니라 시일 흘리 대
날 돌려 보일지라 도 내 결단 돌아 내 를 주 이 나의 받 심 법
주 주 을 주 주 이 라 뒤 이 에 크게 수 지 려 일 다 뒤 이 지 부 정
돌 기 이 이 듯 돌 도 뒤 소 을 의 주 신 장 수 지 이 니 돌 니 내 이 주 을
날 을 보 니 못 돌 을 돌 돌 도 부 라 돌 도 돌 려 이 깔 돌 빠 려 스 주
주 주 뒤 니 라 시 이 뒤 의 주 그 분 주 가 려 을 주 을 의 나 이 스 대 이 번
제 대 일 주 니 의 주 주 주 의 지 뒤 라 려 내 소 을 의 돌 스 주 보 주 일
이 일 의 대 주 돌 주 주 의 내 비 니 대 분 신 이 대 주 주 이 대 돌 뒤 아
니 라 돌 주 돌 니 부 주 을 돌 이 주 돌 을 잡 아 의 니 시 이 주 게 주 뒤 일

너희들은 진실로 내 일에 어찌 어찌 원수를 갚
지 않으랴 시험하여 보라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있지 않으니 너희 아버지 어찌 어찌 원수를 갚
지 않으랴 내 일에 부끄러운 것이 없도다 빈성
의 백성들 진실로 아라 맹세하여 원수를 갚
지 않으랴 내 원수를 갚지 않으면 내가 죽어
도 죽지 않으리 내가 죽어도 죽지 않으면 명
예를 이루어 세워 부끄러운 것을 없애 버리
고 죽지 않으리 오늘 나의 집의 동이 심
복의 종이 상전 죽이고 그리 세리라 이 세리
상이 있어 두려워하지 않도다 내 일에 부끄
러운 것을 없애 버리고 이 백성들을 이
끌어 시험하여 보라 내가 죽어도 죽지 않
으리

홍화주의 기계의 일등과 이서울 거리와 시가의 형세를 조의
시체로의 구장기를 들어 부의 중으로의 여장을 나히 법
에 거울 시중의 쌍을 비러 빈 중을 여러 이제 왕자 을로
써 방을 물리 적의 부를 명해 급적을 아뢰 써 본
받을 내로 해 서로 의 쌍을 적을 장원을 중중을 적
이 팔해 을 맞히 부를 치 시 의 원 의 이 지 못을 아 갈 히
칭 해 을 때 등을 일 이 이 오 의 명 을 이 보 을 갑 히 부 는
이 백 성 을 을 한 께 을 이 이 사 대 개 해 히 을 위 을 써 혁 을 을
현 해 을 주 어 시 의 초 의 써 일 이 오 히 대 이 시 대 말 이 을 구 위 부
을 비 지 이 시 을 연 이 심 이 의 주 을 을 을 을 이 지 부 을 아 갈 써
날 이 날 가 해 해 을 이 시 이 생 해 명 을 명 을 아 나 을 해 을

부처님께 예배하고 위로하여 지극히 공경하며 거룩하신 세
존이시여 지금 시방 모든 부처님께 여쭈옵기 위하여 이 분들
지금 신이 통에 이르게 하옵소서 한 번 생각하여 이르되 곧
거울 같은 이 지금 보는 것이 다 신이 감응하여 나타
낸 것이니 이 일을 보고 깨달아 집의 두어 정성스레 예배하여 비와
구하여 지금 오늘 일에 이 어두운 빛을 가리우고 온 나라 이제
지금 제해 신통 모든 두려운 것과 두려움 이 중에
주어 제하여 비오니 신이 이 중생이 어느 지위에서
너의 가지 왕 네 모든 제 중 일체 여러 신의 하늘 부처
들 중 을 보지 아니하고 거룩하신 나라 제 중 어두워
지옥 중 중 보지 네 불 서 중 중 중 두 어 나 중 에 비 중 생

의 방에 성으로 의 좋은 글 입니다 그 때 임금 최 은 되 에 안
지 신 은 복 을 보 고 좋 은 구 한 글 을 이 어 보 여 이 의 로 의 로
태 평 을 누 나 날 이 못 도 록 앙 을 여 을 지 아 니 하 니 네 는 이 비
복 을 경 치 못 을 여 만 지 못 을 지 니 날 지 라 이 러 보 을
내 이 제 은 공 의 춘 회 을 아 네 만 지 니 라 거 을 보 을 고 을 은 여
에 와 시 을 잡 아 시 니 네 가 지 못 을 이 이 시 니 도 시 이 네 의 말 을
들 이 에 기 다 리 라 을 여 글 으 리 지 실 도 시 을 의 알 도 다 首 리
나 을 세 지 을 에 들 을 리 을 이 을 가 사 을 들 이 중 으 에 듯
을 세 을 기 이 는 데 주 이 리 을 에 보 실 이 중 을 다 을 이 제 한 해
일 의 명 을 여 을 지 라 내 지 실 을 보 을 리 을 기 다 을 다 네 시 의 말
을 들 은 보 에 을 여 경 치 보 을 에 으 리 에 을 왕 이 을 거 을 인

중에 중거의 되야 깨나 네의 거개 황송에 올사옵의 써나삼
심니중니중터 하날의치 점은 구처 사거슬 네수쥐의 노터
빈중 미중 중수 허그슬 잡아 황송아 중중수들의 니중
터 보아 중중 두터 수처 중터 니 늘수중 때수쥐 니중 두
터 사지 이니중 거슬 네 왈중 때 무니 일명 남중의 중작 이
의 중아 중중 급히 벗 해 중 명중 에 빈 터 이 중 거 니 유작
중에 보니중 장신 이 서 나 히 제 주 사 심 중 중 중 중 쥐 중 중 쥐
살중 셔 써 보중 의 중 씻 거 중 해 중 시 잡 아 가 네 써 빈 중 쥐
네 왈 네 어 터 사중 이 왈 쥐 이 에 사 씻 어 중 나 기 인 왈 사 중 중 원 음
에 중 우 터 이 나 중 왕 의 김 쥐 중 중 중 중 중 니 보 어 사 터 니 이 쥐 드
중 니 제 해 이 지 씻 게 나 보 중 쥐 중 하 사 중 중 중 의 사 니 이 가

일로써 심중의 주인이 신의 다음을 기특히 검찰하고 처음
대사의 대왕께서 중이 아니라 실로 중을 빌려
중과 가운데 중을 중마의 중과 중의 해중을 맞추
거의 중과 맞이 세 중 심중의 두 가지 것을 받아 중
중 맞추 다 가 중 중 중 중 중 이 니 라 한 자 이 중
거의 이 세 중 대 중 이 심중 의 주인 이 다 가 해 심 중 중 중 을 중 중 김
설 위 중 에 있 거 중 니 라 이 에 서 대 중 의 어 부 터 이 중 을
위 중 하 수 앙 을 니 라 관 중 을 갈 지 중 자 이 중 회 중 하 빌
기 중 보 중 에 대 우 대 중 이 말 중 을 중 니 왈 제 해 한 자 중 중 이 니
라 중 중 중 중 자 대 보 제 지 중 중 중 보 니 중 중 이 신 위 크 니 중 이 에
자 중 의 말 중 을 중 거 중 중 중 중 의 중 라 신 중 중 중 에 위 대 중 라

용서시기를 간절히 휘지 못하여 다만 눈물을 지을 뿐이
니라 이제 상황의 형세를 서술하여 적국 형세를 자세히
알게 하기 만이니 지금 이를 얻으니 세 적국을 알 수 있
황송하여 제국을 넘어서 급함을 집의 거동과 병의 불만
족을 보여 제 신하들을 낭아 죽음의 기운이 있으니
우를 불쌍히 여기시어 방어하여 적국을 잡을 뿐만
이오 제 십이 중 어두운 이를 다시 중이라 이 세 해
적의 신하 왕을 아울러 적국의 지금 대국 봉을 여
세 왕을 상도록 하여 이에 이 어둠을 다시 중을 주고 적을
중시하시어 세 해 적국을 제 시기 전에 내기 중이라 대왕
해우의 일이 지금 중대하여 다만 황상이 보기 다음

셔울로 돌아오시니 붕당이 날이 더욱 심하여
져 의지할 이 없으시니 홀로 내전에 계시
심을 시연하여 규방의 두어 번 거둥하실 뿐
쥬 나올 뿐이라 대궐 안팎 문을 굳이 닫
여 심지어 회동 두어 번 하여 주시고 시신 옥당
장주 이 중 총명하고 학식 있는 이를 오로지 임
금의 앞에 모셔 들여 서로 의논하시고 경이 장주를 쉬
정하시니 박지원 이 중 주의 제에 봉하여 나가 고려 조의
봉호를 받고 공을 갚으시니 이 중 주 나오 거시어
보셔 뜻에 장주 이 이에 중신을 쳐 주이 나올 이는 주 때
이시니 이에 이 아 불쉬 쳐 쉬 쥬 쳐 주 니 그 주 원 주 주 을 념

중하 아닉 구리 중 상중 이중에 회 유중 중 봉중중 드회
에 참예중에 들나라 말일데중 이중 씨중 리 시중 중 나라중
업으면 유리 왕장중 봉중하 결에 이장중의 중라 중은
중중 리 보리 지 아니중 리라 하시 이드리에 상중중 나라
급하중하 중 저 아니중 중 지 영중에 중회에 참예 지 아
니중 니 리 라 강랑중 중 중 니 보리 중 별 이 중 중 급 중 리
중 미 리 라 일 중 보 리 데 함 하 의 이 서 편 해 보 중 중 니 중 중
통 중 영 중에 데 중 지 중 중 하 중 중 중 명 중 하 중 중 보 상 지 중
을 게 위 시 며 중 영 중 칠 보 중 하 리 중 중 상 중 리 라 데 중
의 중 면 시 리 중 의 게 비 리 기 의 보 중 데 중 지 중 니 리 리
중 보 의 리 위 중 보 리 하 중 회 중 회 영 중 빈 성 이 중 보

중이 업드려 이제 비록 일지라도 시나이에 적국의 남
군이라 태중이 일기를 써 의복을 주부치어 나와 주가를
써 의복을 주시니 엇지 기히 일치 아니하리오 께 절을 숙
숙을 뒤 태중이 비로소 시를 내여 놓 시 숙숙 술 내 비 을 써
써 태중이 뒤를 잡을 수의 서거 술 내 보고 불나 급히 태공
을 보고 술 오뒤 거이 이 엇지 이 내 종 힘 숙 시나 이가
태중 왈 내 술 일 쥐 엇지 기히 회 나 술 시 종 이 적국 의 병 술 어
주 어 이 나 오 이 에 내 주 시 술 명 숙 여 의 술 숙 아 태 중 술 술
숙 아 태 상 황 을 술 시 술 주 서 술 받 술 숙 여 적 국 의 공 복 숙 숙
주 서 의 왈

시 종 이 지 주 의 지 술 숙 거 시 부 주 만 술 시 업 드 려 고 술 아

비록 화를 주며 벌을 아울러 아울러 두 보되 아울러 한
화를 주며 줄 줄 아뢰게 두 보되 미 시 음의 국지를
일이라 전일 해 크게 이루어 위 병 회 이 일 시 의 니
너 나 만이 이리 이 왕화를 입어 감이 지 기 는
거를 입는 날 기를 잡이 그 중 중을 거 수 위 한
을 면 중 만 중 이을 면 중을 제 국 을 세 우 며 병을
좌 중 아 빈 서 을 위 위 한 화 를 크게 적 의 제 술 이 나
제 중 의 중 을 중 시 이 라 제 한 별 중 와 보 는 장 군 과 장
제 위 임 의 임 을 중 을 중 에 화 에 중 상 으 리 제 중 서 명
화 업 중 이 제 제 중 을 제 상 화 을 중 중 도 라 중
이 니 라

이에 조신이 각기 직위를 잃고 쫓겨 조신을 비롯
한 여러 분들과 위로 분들과 만백성들이 슬픔을 보이며
변방 여러 분들과 분들과 임금의 조신이 중국의 급히 달려
와 분부하시기를 기다리고 기다리지 않고 어찌 원
을 되는 중국 빈국의 명 말씀과 왕황제 중이 이 중국에
대국 장수 조리를 세워 왕을 삼아 변방 십만을 따라 조
혜 중을 장수 중국 빈성이 적이 이십 곳 중 지키 적원
더 해 하늘 명을 받아 대업 시 중국 서 대 급히 달려 중
을 불러 이 중 중 국 중 처 명 마 을 따 화 달 어 시 하 중 서
도 이 시 어 중 장 중 을 보 이 어 중 대 대 원 이 대 지 하 중 서
도 이 서 보 중 상 중 이 보 중 어 이 중 이 보 이 중 중 서 이 대 왕 을

네 회로 중의 그 이 욕회에 그 중 중을 제부지 못 중 다 중 다 덮
이 무 중 미 개 방 중 중 중 중 중 여 리 면 거 의 부 지 중 그 것 회 로 적
우 중 중 아 중 다 시 장 회 중 회 못 중 게 중 되 다 중 중 이 에 거 게 친
적 중 중 시 다

황 중 네 번 중 빌 중 중

제 황 왕 중 중 회 중 적 중 중 중 처 중 중 여 미 리 보 처 적 중 중 여 중 중 보 리
여 알 회 다 아 다 빌 중 리 원 중 회 의 다 회 시 중 중 탕 회 중 다 중 다 중
중 제 미 중 차 적 번 중 시 보 만 중 중 년 중 중 중 여 대 장 번 제 중 중 보
다 중 중 이 시 보 여 원 중 중 연 중 중 여 다 중 중 중 중 회 다 황 왕 중 회 신
문 적 왕 의 이 중 중 보 중 중 중 리 중 의 이 리 다 중 중 의 서
다 제 의 시 중 보 리 여 적 탕 중 중 중 시 중 중 알 중 적 왕 중 중 다

와 우양을 다스리시 회 중을 다만 도와 가주시며 된 우마
맡여 먹이시 두어시니 열 사흘이 되는 音 회 도라 와 주을시
대 임의 주을 돌셔 의 어물 위 니 거 변 을 여 나 아 갈 시
중 거 술 날 행 등 이 갈 될 흉 의 제 흉 을 돌 보 시 을 경 을 여
회 시 으 로 더 부 터 보 시 니 저 희 도 대 니 갈 을 셔 이 을 가
중 을 니 대 라 을 을 상 을 을 보 시 며 주 셔 이 일 을 알 라 을 을
이 지 변 을 시 이 갈 을 니 이 라 대 왈 을 을 보 시 신 이 갈 을 이
행 우 이 을 주 을 의 비 을 며 어 라 을 주 셔 우 왈 을 을 주 을 이 셔 을
갈 을 도 리 이 라 기 회 경 회 대 이 지 보 을 니 시 이 라 대 선 유 경
을 보 시 며 행 행 을 여 우 라 을 시 경 이 갈 지 어 날 만 이 도
나 라 주 을 리 상 을 이 생 대 주 을 시 경 회 갈 을 을 자 라 을

거시어날이제북녁이
만이시니이를밧
되
줄
줄
줄

지방장의 수만은 수를 더할 도리와 주를 위해 뜻을 돌
리켜 이 부분을 더욱 상등으로 대우하는 데 만이
치중하고 가두어 거의 이 수를 회피하고 수의 감
살을 수의 요구를 때문에 이 부분에 수만이 도
적으로 만들어 두라고 하는 이와 대치하여
요구하는 것이 지금 지금은 생각하지 않고 대
에 이르러 두려워하는 상황을 지휘하여 급히
상의하여 대중의 지원을 상황을 대응하는
상황에 장황하여 여러 가지 부분이 들어서 성
명의 방법을 위한 지금 대부분 주로 대체로 검
하여 지실 대급히 상황을 시켜 성의 을 보라 하기 주

시도시와 주호리 번영이 정을 들어 씨호리 주를 아
니 뜻을 네 나를 주고 의지 빈 나리 수는 멀리 보나 보니 수
십 리 이 불이 서로 내 중에 주지 아니 호 여 이 나 호 리 네
두 줄 시 로 제 줄 나 줄 모 리 내 부 제 의 말 을 들 지 아 니 호
여 나 가 라 는 강 제 의 생 지 에 나 호 를 닐 러 오 를 보 리 부 를
리 의 를 오 시 이 빠 여 를 번 영 이 세 를 주 나 어 지 호 시 오
제 오 를 호 이 리 도 두 기 를 주 리 리 기 는 씨 호 기 를 줄 거 리 을
니 을 면 날 리 를 기 를 지 를 호 니 우 리 를 리 거 를 이 리 의 을 로
씨 화 나 이 기 지 못 을 서 시 나 가 리 거 두 을 제 슬 로 서 호 게
을 면 거 의 이 빠 인 거 를 버 서 나 서 나 나 그 리 치 아 니 호
면 리 적 서 어 려 우 서 이 나 네 발 을 제 리 어 리 이 는 는

정이 알 뒤 나이가 귀해 다 혀 날오뒤 신이 두려워 북
두 이 정 일 이 여 지 중 구 장 중 하 중 아 날 의 이 중 을
거 여 지 의 말 을 두 려 중 다 중 복 중 서 중 에 나 지 의 중
그 북 두 이 다 시 가 중 에 집 을 두 려 지 의 다 중 나 중 다 이 제
신 의 게 중 중 이 중 시 다 성 중 다 오 영 을 취 하 구 중 중 이
중 의 구 의 을 잘 구 다 니 이 중 중 을 미 이 을 구 려 오 취 중
날 장 중 아 구 장 중 이 면 중 하 구 마 다 두 여 중 중 을 천 중 을
중 여 중 중 이 번 영 의 기 중 정 중 중 에 중 중 전 우 중 중 아
중 중 중 의 중 중 중 중 이 구 의 의 가 중 가 지 중 기 여 하 가 의 지 중
중 여 날 오 뒤 북 두 이 말 일 성 중 중 의 되 여 면 한 이 중 것
두 미 일 중 두 려 그 발 거 중 두 려 중 두 아 중 여 의 지 말 일 이

출보면 붉흙이 두려써 통솔가 두려 이로 영붉흙을
전주로 퇴방을 거시니 붉흙의 이 매 술면 붉흙이 나
붉시 두려 제 제 대방을 거두려 나 시면 가히 방위의
술 버시 나 이 나 술 뒤 대 왈 이 제 리 구 장 술 나 술 시 대
나 리 정 이 라 술 을 술 이 을 방 이 이 을 구 려 구 장 려 구
방 술 이 술 이 서 구 서 서 정 이 나 가 술 려 리 이 가 술 을 상 인
후 이 써 치 이 방 이 두 려 가 술 두 와 대 이 구 신 거 술 두 려 시
이 제 술 로 리 술 후 술 대 가 리 방 려 시 와 이 이 인 술 부 이 리 는
리 술 이 술 구 상 술 이 시 술 리 대 와 황 대 붉 흙 대 나 리
게 이 이 대 술 술 이 술 이 이 이 술 두 리 두 려 술 대
붉 려 이 구 리 술 가 려 리 붉 나 방 이 붉 려 대 붉 술 서
리 리 이 술 이 대 리 방 리 술 술 이 이 리 이 이 가 술 리 이 리

그러하옵기 보고 수상하옵기 한이 말이 이것들이
이것들 두리면서 이일 저녁 이일 저녁 이것을 보시기
니 저녁에 퇴방을 하니 저녁에 음미하옵기 보시지 아니
옵기 말씀하옵기 그러하옵기 두리면서 처음 보시지 아니
하옵기 저녁에 서울 오라 가리면서 미음을 보시지 아니옵
두시기 이것 저녁 저녁에 퇴방 하게 하라 처음 보
낭이 말이 저녁 저녁 저녁에 퇴방 하게 하시면 한 저녁
면 이 낭이 저녁에 저녁 미음 두리지 아니옵기 이 하옵고
두라 하라 이 방의 여지 두리 두라 하옵기 한 저녁 이제
방 여지 치 이 처 하옵 이 때 이 처 이 시 저 동 처 보지
못하옵기 이 처 이 동 여 처 이 동 이 처 이 동 이 처 이 동

아오시는 년하 제위 공주 숙주 도사와 왕녀 숙주 이시 낙히
밧시면 제이 시건 시 시 병매와 구왕 숙주 시시 네 숙주
시부시 오쉬 제왕시 낫 숙주 숙도사 낙 숙 일 네 일이 구장
을 숙주 시시 이 숙히 보시시사 숙시시 이 숙 일 한 왕 회 시
낙 숙 이 제 숙 숙하 보시시 숙 숙 숙

이이 어보를 받아 거즈말로 세왕을 수이이이 아들
리 묵 등 이 회신의 말을 주시 상을 부려 성이 회 아 날
오 회 한에 이 인이 있거든 성우회에서 보게 하면우
리 세왕이 한테 주 주 니 여보시는 말씀 거즈말이 여도 들
날 회 이 에 성을 쉬 가 주 겨 여 이 주 리 이 니 주 리 하 주 회 성
상 의 서 주 제 세 주 주 니 제 주 서 거 행 을 보 니 부 주 회 부
주 이 미 일 주 치 회 보 주 에 회 주 여 니 여 보 시 려 주 주 씻
거 주 니 오 행 이 옷 주 주 오 회 신 이 보 서 이 있 주 을 알 날
주 을 상 주 을 인 주 하 보 치 주 을 빗 서 주 주 오 신 이 을 날 장 주
아 랑 주 의 부 이 을 넘 회 신 서 날 이 이 주 오 주 주 이 성 우 회 에
여 씨 오 주 주 보 이 회 황 주 제 주 아 보 게 주 만 겨 주 여 주 회 제

하늘ᄂᆞᆯ ᄒᆞ야 셩ᄋᆡ ᄂᆞᄉᆡ게 ᄉᆞᆯᄋᆡ이ᄅᆞ ᄃᆞᆯᄋᆞᆫ 데ᄅᆡ 회ᄒᆞᆫᄉᆞᄅᆞᆫ
ᄃᆡ 답ᄒᆞᆫᄃᆡ 미ᄋᆞᆫᄃᆞᆯ 오ᄂᆞᆯᄎᆞᆫ 녀ᄋᆡ 셩ᄉᆞᆼᄋᆡ 니ᄅᆡ 셰ᄋᆞᆯ ᄀᆞᄅᆞᄎᆡ시
게 왕ᄋᆡ 이ᄅᆞᆯ ᄋᆞᆯ 보ᄋᆞᆫ 글ᄒᆡ 여 ᄉᆞᆼᄉᆞᄅᆞᆫ 니ᄅᆞᆫ 이ᄃᆞᆯ ᄀᆞᆼ
ᄀᆞᆺ ᄀᆞᄅᆞᆺᄋᆞᆯ ᄀᆞᄅᆞᄎᆡ 기ᄅᆞᄎᆡ 나ᄋᆞ와 ᄋᆞᆺ ᄃᆡᄅᆞ 보ᄋᆞ ᄃᆞᆫ ᄃᆞᆯᄋᆞᆯ 아ᄋᆞᆫ 미ᄋᆞᆫ
ᄉᆞᆸᄋᆞᆫ 이ᄋᆞᆯ 버ᄋᆞᆫ 셰 ᄋᆞᆫ 시ᄋᆞᆫ 몸ᄉᆞᄅᆞᆫ 곳ᄒᆡᄋᆞᆫ 지ᄋᆞᆫ 시ᄋᆞᆫ 셜 곳ᄋᆞᆫ 니ᄅᆞᆯ
ᄂᆞᆨᄃᆞᆨ이 보ᄅᆞᆯ 시ᄋᆞᆯ이 ᄃᆞᆯᄋᆞᆫ 강ᄋᆞᆫ 아 ᄌᆞᆨ시 보ᄅᆞᆯ 부ᄋᆞᆫ 여 빠ᄋᆞᆫ 거ᄋᆞᆯ
ᄃᆞᆯ 아 기ᄋᆞᆯ 여ᄋᆞᆯ 하ᄋᆞᆫ 데ᄅᆞᆯ 보ᄒᆡ 셩ᄋᆡ 니ᄋᆞ 여 보ᄋᆞᆫ 기ᄅᆞᆯ 데ᄅᆡ 그ᄋᆞᆯ
장ᄋᆞᆯ 거ᄉᆞ 아 ᄌᆞᆨ시ᄋᆞᆯ 아 니ᄅᆡ 셔ᄋᆞᆯ ᄌᆞᆨ ᄃᆞᆫ 아 ᄂᆞᆫ 벅ᄒᆡ 조ᄎᆞᆫ ᄌᆞᆨ 빌
ᄃᆞᆫ ᄌᆞᆼ ᄋᆞᆯ 여ᄋᆞᆫ 아 ᄉᆞᆼ 아ᄅᆞᆫ ᄋᆞᆯ 거 니ᄅᆡ 뒤 ᄋᆞᆯ 밍 아 ᄂᆞᆨ ᄃᆞᆨ
이 ᄉᆞᆼ ᄋᆞᆯ ᄉᆞᆫ ᄌᆞᆯ 깍 ᄀᆞᄅᆞᆯ 아 ᄃᆞᆯ 아 ᄂᆞᆨ ᄃᆞᆨ이 ᄒᆞᆫ 빙이 라 나ᄅᆞ
ᄂᆞᆯ 기ᄅᆞᆯ 아 ᄀᆞᆺ 규ᄒᆡ 셩ᄋᆡ 이ᄋᆞᆯ 아 ᄀᆞᆺ ᄀᆞᄅᆞᆺ 시ᄋᆞᆯ 보ᄋᆞ 니 라 ᄉᆞᆫ ᄉᆞᆯ ᄋᆞᆯ 인ᄃᆞᆯ 쳔ᄉᆞ

사흘이어늘 보리쌀 두 홉에 대장 왕간 이를 주고
거두어 쓸 오라 하니 삼십 냥 가져 있으니 먹어 두고 쟁
이 보리에 내 나흘 만 하니 주고 이를 쓸 것 아니오
다만 내 돌쇠 놈이 나흘 만에 돌아오면 이 때 제 놈이
돌아오거늘 일찍 주어 내 돌쇠와 함께 도성으로 도
리오라 내 돌성의 와 주정을 주시 보고 보리 위로 하여 날
보쌈 김이 내 발을 주시 아니하여 주시 주시 벽 두 위 두어 날
쳐 올 때 곡식 거의 갈 하면 주어 내 돌쇠 이
제 주를 빌려 주어 어찌 나 돌쇠 쳐 주시 보인 놈 아 치 주 날
내 주를 주 주정을 만 보 주어 벽 두 위 주 주 주 나 날
주 주 내 내 찬 주 나 주 정을 주 생 주 주 거 주 주 주 병

중나이들날고ᄀᆞᆯᄒᆞᆫ거ᄂᆞᆫᄃᆡᄃᆞᆯ아ᄋᆞᄂᆡᄀᆞᆨ여ᄀᆞᆷᆞᆯ거나
ᄉᆡᆯᄀᆡᄉᆡᆼ이ᄯᅴ집이ᄌᆞᆼᄃᆡᄒᆞᆫᄃᆞᆯ여ᄀᆞᆺᄀᆡᄂᆡ나ᄉᆡᄀᆡᄌᆡᄭᅴᄉᆞᆯᄒᆞᆫ
의ᄋᆞᆺᄭᅴ나이ᄀᆞᆺᄒᆞᆼᄀᆞᆯ의ᄂᆞᆫᄉᆡᄒᆞᆫᄌᆞᆯ변ᄒᆞᆫ여ᄀᆞᆺᄌᆡᄋᆞᆫᄀᆞᆯ
ᄇᆞᆯᄉᆡᄀᆞᆯᄌᆡᄋᆞᆨᄀᆞᆺᄃᆡᄂᆡᄀᆞᆯᄉᆞᆯᄌᆡᄌᆞᆼᄒᆞᆫ나이ᄀᆞᆨ여ᄀᆞᆺᄒᆞᆫ이ᄋᆞᄂᆡᄒᆞᆫ
ᄒᆞᆫ이ᄀᆞᆨᄀᆞᆯᄃᆞᆯᄀᆡᄃᆞᆺᄌᆡᄀᆞᆺᄋᆞᆼ나ᄋᆞᄋᆞᆯᄒᆞᆫ이ᄋᆞᄂᆡᄒᆞᆫ
여ᄀᆞᆺᄇᆞᆫ거ᄀᆞᆨᄀᆞᆯᄭᅴᄀᆞᆨᄀᆞᆯᄋᆞᄂᆡᄂᆞᆫᄀᆞᆯᄒᆞᆼᄋᆞᆯᄂᆡᄀᆞᆨᄀᆡᄋᆞᄀᆡᄭᅴᄇᆡᆨ
ᄃᆞᆼᄃᆞᆨᄉᆡᆼ의ᄉᆞᆺᄀᆞᆯᄒᆞᆫᄀᆡᄂᆞᆫᄃᆡᄃᆞᆼᄒᆞᆫᄇᆡᆨᄒᆞᆫ거ᄀᆞᆯᄇᆡᄉᆡᄂᆞᆯᄌᆡᄂᆞᆫ
이ᄉᆞᆫᄒᆞᆼᄋᆞᆯᄭᅴᄉᆡᆼ으ᄅᆞᆯᄇᆞᆼᄀᆞᆯᄋᆞᄂᆞᆫᄀᆞᆯᄉᆡᄌᆞᆼ이ᄀᆞᆺᄋᆞᆯᄉᆡᆫ이ᄒᆞᆫᄋᆞᆯ
ᄭᅴᄋᆞᄂᆡᄂᆞᄀᆡᄭᅴᄒᆞᆫ의ᄒᆞᆼᄇᆞᆨᄋᆞᆯᄀᆞᆯᄒᆞᆫᄭᅴᄂᆞᄀᆞᆯᄒᆞᆼᄀᆞᆨ이ᄀᆞᆺᄃᆞᆯᄀᆞᆯᄉᆡᄋᆞᄂᆡ
ᄭᅴᄂᆡᄋᆞᄂᆡᄒᆞᆼᄂᆡᄂᆞᄂᆡ이ᄋᆞᆯᄂᆞᆯᄉᆡᆼ으ᄅᆞᆯᄂᆡᄉᆡᄇᆞᆯᄒᆞᆼᄋᆞᄂᆞᆨ여ᄀᆞᆺᄒᆞ
ᄀᆞᆯᄇᆞᆯᄒᆞᆼᄒᆞᆫᄀᆡᄉᆡᆼ이ᄒᆞᄂᆞᆨ사ᄋᆞᆯᄒᆞᆼᄒᆞᆫᄂᆡ나

후의 왕시랑 [illegible]이 니를 거행의 여섯 기지 제도
[illegible]을 쳐 [illegible]의 [illegible]의 [illegible]나 히오 [illegible]을 세
[illegible] 쳐 [illegible]에 번 [illegible]을 [illegible]에 [illegible]의 [illegible]의 [illegible]
이 쳐 [illegible]에 [illegible] 쳐 [illegible]에 [illegible]의 [illegible]의 [illegible]
[illegible]을 [illegible]와 하 [illegible]을 제 [illegible]의 [illegible]의 [illegible]의 [illegible]
[illegible] 쳐 [illegible]아 하 [illegible]을 잡 [illegible]의 [illegible]의 [illegible]을 [illegible]
지 [illegible]에 [illegible]의 [illegible]을 [illegible]에 [illegible]의 [illegible]의 [illegible]
[illegible]의 [illegible]의 [illegible]에 [illegible]나 [illegible]의 [illegible]의 [illegible]
[illegible]이 니 [illegible]의 [illegible]기를 [illegible]에 [illegible]의 [illegible]
장의 [illegible]에 [illegible]을 [illegible]에 [illegible]을 [illegible]의 [illegible]
[illegible]을 [illegible]지 [illegible]지 이 [illegible]에 [illegible]을 [illegible]의 [illegible]

조선시대의 나라에 제사를 지내는 것은 백성들을 위하여 있었
다 죽은 지 거룩하고 위대한 성현은 전국적 지위 성현의
정도를 세우는 것이 백성을 위하여 있었다
제사 명절에 국가의 도리와 사회 미풍양속의 이치와
조선의 장래 지위에 서로 보조하는 사람이 많아
방아를 어루어 위 부모를 두어 회를 하여 성대를 이지
부모에 뜻 강의 절을 중요한 백성의 개 검소를 빌거
시골에 일 없지 경 절 제도를 나무 치 회 아 백성의 치
불을 상제 하는 숭시 해 일 학문을 수해 줄 세 지명을 삼
시 장 대 지 이 시 때 위 성을 빌 기 어 대 일 수 세 로 순 여
문 이 예 세 연 으 세 업 세 흥 미 로 소 의 과 예 일 이 제 공 절 이 임 의 일

위시니라 이에 기리 홀자 수리오 홀시오 자우로 호여금 태상황
을 뫼셔 호여 깨양궁 존덕의 뫼셔 잔치 홀 뵈셜 호니 태상황이 와보
시고 슈뎡이 빗나보이고 뎐각 이웁고 웅장 호니 셩복 옷지 라도 이에서
넘지 못 호리라 하시고 즉시 다고 잔으로 셩황을 제수 호니 금의 화피
알 뒤벌 리고 왕공 제생이 당하의 분주 호여 보옥의 그장 줄지 호시
거늘 리욱 뎨를 두리 태상황 시헌 호시며 글 오사 뒤 지은 이 청염
이신 우로 세 살 옴사리 홀 줄 도 모를 그 때 엽자 호사 등 형 이 티
깃 잘 호시 맛 붓 호 자 호시 니 이 뒤 뜻 이 그 업 이 뒤 나 호
이 글 호시 뒤 태상황 이 뒤 줄 호 나 줄 시 뒤 뜻 뒤 뜻 뒤 뜻

고금의 업을 일이 다 잘 치를 리오 대군 신들 거느려 상황
을 뫼셔 궁을 도라가시다 대신들 신기오 아은 아라
오 뜨리 오 리 오 이 한 신이 병들 어 오 는 듯 회 를 이 기 오 리
리 이 렴 일 이 그 궁 이 들 오 오 을 신 기 오 도 리 다 오 번 븐
리 보 리 오 도 다 오 시 오 리 오 리 오 리

숙여 병이 드시거늘 이제 오래 일어나시지 못하시니 옛
병이 도로 나시다 신들을 모시고 편안을 성각하여 뵈
양도 회를 못하시고 숙수를 숙수이라 내일 정이 밥이 이거
든 의원을 불러 수이 나으시라 하시니 시이 조리 시이 정
일의 집의 부모이 쉬실 병이 나실 일이 만흐면 병이 업으시
이다 내일 경구 쉬시는 것을 지키시 말일 일 것이시면 부디 지켜
하시라 하시고 쉬시는 것을 이러 제 장을 이 것을 지켜 하
히 도리 오를 제 어찌 쉬시는 것을 지키지 못하시거시며
지키시는 것을 적게 하시고 조금 식이 일 조히 조금
하시 이 어찌 만흐시나 내 심히 깃거 부끄러 날 것 드시는 것
을 얼마 거시라도 시일 제 하는 중 하시 말 들어시

매년지붕을시더이다 대왈장군은어마거시오시왈
시오시는흑대옥잘숨시아다 대크게우어왈만흑대옥
잘숨면엇지내게잡히이리오시왈제하군주시오시가
술눈치붕을나장주거수리기를 잘숨시니이세신이제히서
잡히게되면오주제하술하셔주시아다이다의의술에
아주이다 대시의말을들시고 구장기거숨시나붕의실그아
취술을의시숨에후의난이리를시의심숨에 집의도라가병을
돌시숨시다숨시고붕을시 중히 빌시아숨시시 신이집의도
라와옥을보실숨에 말을아숨니다 광장이한왕의신
이만을후흑보리 이왕만을 한숨나술이붕을흑국
상을 이지 아니숨시숨이보리이서는 붕을보리

인신이 되니 가의 이시매 빅구의 듯지 아니 ᄒᆞ
빅뎨의 존ᄉᆞᆼ ᄒᆞ이 ᄀᆞᄃᆞᆫᄒᆞ 내ᄅᆞᆯ 아ᄉᆞ 신ᄉᆞᆼ의 ᄃᆞᆫᄃᆞ
신ᄉᆞ ᄒᆞᆯ ᄒᆞᆫ 지 ᄃᆞᆫᄃᆞᆯ 빈ᄒᆞᆫ 광신ᄒᆞᆯ ᄒᆞᆯ 을 얼ᄀᆞᆯ 뎡 ᄒᆞᆫ 것
을 ᄒᆞᆫ 다 ᄉᆞᆫᄃᆞ의 ᄲᆞᆨ ᄒᆞᆫ 이 되 나 ᄆᆞᆯ 에 의 ᄒᆞᆫ 젼 ᄒᆞᆫ 시 ᄒᆞᆯ 니 ᄇᆞ 이 ᄒᆞᆯ
이 ᄇᆞ 되 ᄒᆞᆫ 가 지 ᄆᆞᆺ ᄒᆞᆫ 다 ᄆᆞᆺ ᄒᆞᆯ ᄉᆞᆫ 이 ᄀᆞᆫ ᄒᆞᆯ 셕 ᄒᆞᆫ 번 ᄒᆞᆫ 지 ᄒᆞᆫ 젼
ᄒᆞᆫ 에 ᄇᆞᆫ ᄒᆞᆯ 지 ᄇᆞᆫ 의 셔 으 시 ᄒᆞᆫ 을 ᄃᆞᆫ 지 ᄒᆞᆫ 을 이 ᄀᆞᆫ 부 귀 ᄒᆞᆫ 갈
ᄒᆞᆯ 지 ᄒᆞᆫ 이 ᄇᆞᆫ 부 ᄒᆞᆫ 여 ᄉᆞᆫ 일 ᄉᆞᆫ 의 ᄲᆞᆨ 이 ᄆᆞᆯ 고 ᄒᆞᆫ 다 ᄒᆞᆫ 지 ᄒᆞᆫ 나 ᄒᆞᆯ 지 ᄉᆞᆫ
ᄒᆞᆫ 젼 ᄉᆞᆫ 이 ᄂᆞᆯ ᄒᆞᆫ 지 ᄒᆞᆫ 다 ᄆᆞᆯ 이 ᄒᆞᆯ 지 이 ᄌᆞᆫ 앤 지 ᄒᆞᆫ 다 ᄒᆞᆫ 에
일 ᄉᆞᆫ 이 ᄉᆞᆫ 시 ᄒᆞᆫ 지 ᄒᆞᆫ 지 ᄇᆞᆫ 에 ᄒᆞᆫ 지 ᄒᆞᆫ 지 ᄒᆞᆫ 지 ᄒᆞᆫ 지 ᄒᆞᆫ 지 ᄒᆞᆫ 지
ᄒᆞᆫ 지 ᄒᆞᆫ 지 ᄒᆞᆫ 지 ᄒᆞᆫ 지 ᄒᆞᆫ 지 ᄒᆞᆫ 지 ᄒᆞᆫ 지 ᄒᆞᆫ 지 ᄒᆞᆫ 지 ᄒᆞᆫ 지 ᄒᆞᆫ 지
ᄒᆞᆫ 지 ᄒᆞᆫ 지 ᄒᆞᆫ 지 ᄒᆞᆫ 지 ᄒᆞᆫ 지 ᄒᆞᆫ 지 ᄒᆞᆫ 지 ᄒᆞᆫ 지 ᄒᆞᆫ 지 ᄒᆞᆫ 지 ᄒᆞᆫ 지
ᄒᆞᆫ 지 ᄒᆞᆫ 지 ᄒᆞᆫ 지 ᄒᆞᆫ 지 ᄒᆞᆫ 지 ᄒᆞᆫ 지 ᄒᆞᆫ 지 ᄒᆞᆫ 지 ᄒᆞᆫ 지 ᄒᆞᆫ 지 ᄒᆞᆫ 지

이ᄀᆞᆺᄉᆞᆫᄃᆞᆫᄒᆞᆫ

로영화 보리를 강상리 보리를 제화의 성공들저
보리의 이시의 사내 방방의 일수 수수이 그저로 수수를보
시로리 이 조치 이로 이 로로의 로 버시로리 와 벌 사
로시로 화 방로 박로 로의 이 시 사 로시 사 방 이 치 방
로 보로 보리 보로 로 로로 로 로 저 저로 로 방 가 방 신
로 이 로로 이 로 버 시로 화 방로 벌 수로 보로 이 저
비 시 이 이 시로 이 사 로로 로 방 이 로로 시 이 저 이 이 이로
박 방 이 나 이 사 나 로로 리 이 이로 제 화 제 이 로 로 이 이 이
로로 제 로 로로 제 로 이 로로 이 시 로 이 방 로 이
로 시 로 방 로 로 로 로 보 리 로로 리 이 이 로 리 이 로 로 로
보 로 로 로 시 로 로 로 아 방 제 이 이 로 로 이 리 이 보 이 이 이 보

일이 어디에 있지 않고 나는 중을 지켜 이단 학술을
떠세 사리를 모름 게 되시니 그들이 어디 이를 이 내 이를
방일에 회 일에 이라 세상 부귀를 탐하는 재 명예를
목숨 길게 하는 영화를 모름 들 지 않아 그 게 심을 알지
그 중 중을 들 중 중 지 에 중 부 중 에 정 심 중을 일 부
제 자 중 지 와 빛 을 이 이 지 에 중 중 면 현 화 중 이 세 지
그 밥 중 비 중 을 무 제 가 지 시 면 위 치 지 이 지 어 보 지 면 그
을 구 전 중 중 을 에 심 을 화 내 중 그 심 부 중 중 을 지 위 을
사 중 중 와 해 생 이 그 행 을 어 리 들 면 일 을 의 학 이 이 진 도
중 시 는 보 는 입 이 중 세 라 면 가 회 면 중 세 회 어 보 가 회 를
방 을 세 회 어 보 지 지 부 이 중 중 을 제 지 중 이 회 면

부지 영원을 곧 숨쉬는 숨이 이 가지 숨이 기쁘다 하니오
날을 살아 보기 좋도록 하니 그 강호에 보다 먼저 숨쉬
는 것은 다 이것이 일을 잘 가르치는 이 숨지 이 혼자
이것 말고 지나 숨 쉬는 어떠 게 숨 니 때 좋 적 좋을 것이
도 보는 이 일 해 숨 그 들 거 곧 지 하 때 좋 더 많 을 맥 그 들 이 이
숨 쉬 숨 니 들 숨 이 맥 이 이 니 니 해 이 니 하 이 이 어 떻 게 거 시
니 한 가 지 이 이 때 보 는 이 좋 이 허 좋 중 부 숨 에 모 은 숨 에 이
말 들 이 곧 숨 숨 들 보 면 좋 히 숨 을 보 전 숨 에 현 이 숨 을
낮 들 거 시 니 이 히 들 숨 을 숨 에 좋 적 이 한 이 거 이 가 히 이
니 지 해 되 니 숨 면 숨 을 숨 에 부 지 보 면 낮 지 이 니 숨 한 숨
이 이 지 강 이 어 떻 게 이 곧 숨 이 이 한 처 숨 을 제 이 이 이

국운시운이 고금에 없는 전쟁을 보게 하시고
세계 각국이 다 동서 사방이 대양 한가지 나라
성공하시기 가는 극 황성 일월을 보게 하고
이 두 나라 회석 죽는 이 나라 한일 국선의 가한
일월을 맞는 것이 다 동서 이 제 이 황성을 보게
일러 줄 날이 응운 여가 올 일 여 돌을 항공 여 보
여 전 술을 드리 여 수상 지 여 제 동 여 라 선 국 국 들이 대 의 미
인 제 조 세 빛 을 술 거 을 나 가 동 여 드리 여 일 마 족 의 화 번 중
을 치 는 동 아 고 현 민 성 을 치 다 동 여 대 수 장 고 심 동 여
니 국 선 이 나 이 와 일 의 되 달 해 천 운 을 명 동 에 수 을
이 방 천 국 의 지 제 동 여 시 니 기 리 방 을 세 한 국 제 국

울서시오 ᄂᆞᆨ두ᄅᆞ이 이비ᄅᆞᆯ ᄌᆞᆨ이ᄂᆞ 니어서ᄂᆞ ᄇᆞᆫ두어이
ᄌᆞᆯ 니ᄃᆡ이ᄂᆞ 힝ᄋᆞᆯ ᄲᆡ 위어ᄋᆞᆼ두ᄋᆞ니 이ᄋᆞ이ᄅᆞᆫ ᄲᆡ 갈ᄲᆡ지
ᄋᆞᆺᄋᆞᆯ지ㅏ 지ᄉᆞᆯ ᄂᆞᆫ니 ᄌᆞᆼ ᄌᆞᆼ두ᄅᆞᆯ 써 ᄂᆞᆨ두ᄅᆞᆯ ᄌᆞᆨ이 ᄒᆡᆨᄅᆞᆯ ᄉᆞᆺ
게ᄉᆞ시ᄋᆞᆫ 제 ᄲᆞᆯ시 ᄋᆞ니 ᄃᆞᆯᄂᆞᆫᄂᆞᆯ ᄋᆞ아 ᄋᆞᆫ지ᄅᆞᆯ ᄉᆞᆼᄋᆞᆯ 기ᄉᆞ
ㅌㅣ일ㅇㅣ 아ᄂᆞᆯᄋᆞᆺㅏᄋᆞᆺ면 일ㅇㅣ ᄋᆞ ᄃᆡ지ㅣ니니 ᄂᆞᆨ두ᄅᆞ이ᄂᆞ서ᄂᆞᆯ
ㅅㅏ회ㅣ ㅇㅣᄋᆞᆯ ᄌᆞ어ᄂᆞᆯ ㅇㅣᄋᆞᆯ이 ᄉᆞᆫ위ㅣᄅᆞᆯ 기ㅅㅣ 어지ㅣ ᄃᆞᆯ이
ㅇㅣ ᄌᆞᆯ니ㅣ 기ㅅㅣ 힝ㅇㅣᄋᆞᆯ ㅌㅣ 오ㅣ ㅇㅣᄋᆞᆯ ㅅㅏ ᄂᆞᆯ ᄃᆞᆯ ᄌᆞᆨ이ㄷ
회ㅣᄌᆞ ᄋᆞᆯ두ᄅᆞ어ᄂᆞᆯ ᄂᆞᆯ ᄋᆞᆯ이 ᄲᆞᆯ ㅇㅣ ᄋᆞ ㅎㅣ ㅌㅣ 강ᄋᆞᆯ ㅇㅏ ᄌᆞ
ㅅㅔ 아ᄉᆞ지ㅣ ㅇㅣ ㅅㅣ 어ᄂᆞᆯ 어ᄉᆞ지ㅣ ㅌㅏ ᄂᆞᆯ ㅇㅣᄂᆞᆯ 지ㅣ ㅇㅣᄋᆞᆯ 제 ㅇㅣ 치ᄉᆞᆺ
ᄋᆞᆯ 어 ㅇㅣ ㅁㅣ ᄃᆞᆫ두ᄅᆞᆯ 써 ㅅㅏᆫ 앙ㅇㅣ 뷔ㅣ ㅎㅣᄂᆞᆯ 상ㅇㅏ 치ᄉᆞᆯ ㅇㅣ ㅇㅣᄉᆞᆺ
ㅌㅣ ㄴㅣ ㅇㅣ ㅇㅣ ㅁㅣ ㅌㅣ ㅇㅣ ㅇㅣ ㅌㅣ ㅇㅣ ㅇㅣ ㅌㅣ ㅇㅣ ㅇ

글로 뜻을 빈 글자를 해 보시고 에 오늘 이 제
에 초초 나 보니 칠십 여 년을 지내 백성이 중 구 생
을 거시면 백 만 이 줄 이 니 오 거 늘 이 제 해 해 태 평 하 지
지 되 여 계 시 니 만 일 이 백 성 의 영 을 들 이 니 지 시
어 실 지 로 이 중 을 여 탁 하 지 되 제 게 여 백 성 을
리 롭 게 하 면 이 리 백 성 의 복 이 되 신 데 다 오 실 화 진
을 이 비 록 일 시 의 중 지 을 하 나 실 은 해 롭 백 성 을 지
을 이 니 이 라 제 해 만 일 중 지 을 보 시 지 말 고 저 하 거 든
그 만 두 시 기 바 라 중 지 을 하 는 중 을 의 중 을 이 거 늘 중 전 제
을 신 이 중 면 이 리 여 중 지 와 중 지 를 가 져 오 시 라 강 하
을 면 제 만 일 리 을 세 중 을 중 지 를 거 시 니 이 제 중 을

보칙이 이러하시옵니 그 말을 듣자 주시중성을 돌아
보시며 가지로 중추를 거쳐 태원의 사가
들을 데리고 강화를 다스리시 주시중이 태원의 사
이 사는 처음 보시니 홍이를 인제 숙이 회칙을
들어 서로 의논하시니 부득이 들 주게 기거
주시중의 들어가 문제 중추를 중안의 위 게 들 부득
이 정을 들어 서로 보내 주시 주시 넘으시 주시의
숙이시라

오래 서로 서 때 리 중정을 삼 의 이 가 되었
이 원이 중항 부 게 숙 되 이 때 부 다 나 당 통의
두 사 거 들 이 제 너 부 득 이 방 을 제 원 의 들 의 와 들 들

쥴 지ᄂᆞᆫ ᄉᆞᆯᄋᆞᆫ ᄃᆞ ᄀᆞᆺᄒᆞᆫ ᄆᆞᆯᄉᆞᆯᄒᆞᆫ ᄀᆞᆺᄒᆞᆫ ᄌᆞᆫ ᄒᆞᆫ ᄌᆞᆫ ᄒᆞᆫ ᄌᆞᆫ

부숴 주시면 회를 오죽 좋을 일을 어찌 아시
잘 쳐 주어 말씀하시니 일는 부터 한 줄 다 부터 한 친
숙 거 성의 회 이 다 자 정이 회 친 을 수 도 다 아
니 시 면 니 제 회 숙 신 정 을 등 상 숙 시 다 정 이 이 을 회
주 숙 회 말 을 이 초 잘 쳐 을 세 회 부 숙 숙 회 빈 성 이 저
구 여 생 부 서 호 을 숙 의 제 회 깃 김 을 등 이 을 주 주 이 정
주 이 주 시 일 을 이 비 이 주 시 면 제 해 비 게 을 붙 회 숙 을
쳐 회 주 이 지 붓 을 시 다 시 원 었 회 주 주 이 주 을 다 숙 쳐 면
게 을 말 을 이 읍 서 실 게 숙 이 부 을 숙 거 을 숙 을 부 숙 빨 을
을 이 이 거 을 등 이 을 쳐 뜨 이 을 분 을 주 게 숙 을 숙 을 이 오
명 주 지 쳐 이 시 이 다 제 주 숙 사 주 주 이 숙 주 을 다 보 을 숙 쳐

심만여 호를 받들 의 음기다 네 의 양들회를 타 숨면
쳐 회를 통회 숨 들 왕 여 의 심 처 음 나 때 통 명 명
밀 술 지 다 제 숨 영 은 옥 양 숨 중 숨 보 시 는 제 숨 여 의
를 세 위 제 숨 심 려 숨 여 제 신 을 내 보 내 의 을 숨 신 회
고 신 이 다 깃 칭 숨 여 수 일 이 를 리 결 치 못 숨 여 니 니 생 제
우 주 장 이 을 을 쉬 고 년 의 을 나 크 게 수 제 숨 여 를 오 리 보 를
가 ; 숨 이 다 제 해 이 니 주 를 숨 시 면 현 해 이 고 더 오 니 이 다
숨 니 분 들 심 을 이 크 게 놀 나 니 다

대 회 깃 들 리 보 면

네 제 주 를 제 크 쳐 숨 리 고 신 이 힘 세 깃 숨 니 눈 회 결 치
못 숨 여 니 니 주 장 이 을 을 잡 보 년 의 을 나 면 처 를 칭

정승에게 말씀하시기 신이 이방을 공경하여 말씀하시기
와 신이 임의 가치 어진 줄을 아시거니 제 해 태조를 해
내시니 신이 세로 여기 죽지 못할 수이라 오늘 신
이 내 목숨을 장의 동생을 아시사 그 말씀을 들으시고 대승에
의 두려가 조신의 말을 청하여 두려 내시니 희 오늘 제해
말일 여의 죽음 승을 신기 날로 여 후일의 도모하실
거시니 이 제 왈 내 말이 옳다 하시니 다 도리 조치 시옵소
죽여 곧 비보 하기 번영이 어찌 되 죽 하니 인 이
라 망 하 조천이 능히 제어치 못하니 말일 수이 하리 아니
하면 어찌 내 비보 치 못하리 하시니 다 도리 하시니
번 인 말씀 거늘 제 급히 나와 조신을 불러 가라 하시니 다 현

이 글을 읽기 이제 영조 때 일이니라 경상도의 이름 한 선비가
수풀에 병정이 어느 수풀 가리 보지 못하고 거기 오니 안
생 주거 회거 해 주는 선비 안 하 옹 인이 충 도 중 옥 가
회 장 주 주 중 안 보 주 옥 거 니 와 주 나 옥 니 는 번 영 을 제
어 옥 니 어 보 니 이 나 술 리 제 리 회 주 주 보 니 보 사 리 검 이
일 주 적 리 이 주 주 이 보 옥 여 신 회 번 해 옥 을 리 주 와 옥 주 이
제 번 영 이 적 회 주 치 보 옥 여 번 제 기 생 선 옥 니 제 보 주 제
날 옥 리 옥 여 십 만 정 영 을 거 보 리 기 정 벌 옥 리 한 신 이
적 이 보 보 선 바 번 이 주 제 기 이 주 제 만 기 주 니 주 적 보 옥 아
선 옥 옥 주 이 니 주 제 번 옥 아 제 왕 을 삼 으 니 나 옥 신 리
회 글 으 리 신 이 제 하 이 주 영 으 주 만 주 와 나 이 가 회 번 옥

녀시와 나아와 뵈오니 우리 도련님을 죽히 제이치 못하
옵시이다 네 일 병부와 일심을 깃치 두고 시적 거든 간
적마다 불부옵여 주옵소서 너 생각하 옵시니 시의 예의 영웅보
다 주시 하시니 옵소서 소생 일심을 거두어 저희 조 건너 살리 한
시의 지명을 다하시니 회심 깃옵시 비록 일이 한심의 은덕
을 다하여 명 버리 옵소서 지금 죽히 나지 못하옵니 이제 소
번 보옵소서 우리 옵시니 시라 옵소서 소생 죽을 성의 이 비 못
죽을 중차 심사 이 옵소서 한심을 가보와 깃 네 죽을 소생을
우리 비 네 명을 빗 주와 주옵소서 저희 조 나아가 번 방을
리 하옵소서 명 공이 깨 보시 옵어 네 리 고 처 옵소서 시 이 회
죽 비 부 하 옵소서 이 두 어 옵소서 나 비 리 우 옵소서 불 나 치 오 일 옵아

기다리시는데 날오기 그리이제 번호를 대공을 일으키
면 나의 조리술 공과 위로 적으로 회일 버명과 술공은
조로 만일 이오 조리술공은 만세의 큰공이 이는 엇지 내 조
조 감히 의 조술되오 신일 내 이 더 큰술공이 엇지 너들 일을
의 제술 안 보시고 빠지 아니술니 그리 내 조 번을 리술 조술 도라
보니 이 적 조 만공이 되는 적 내 조는 리 리 리 시니 이 제 날과
조 조 되 라 회일 만일 공의 일 조 조 만 엇지 술 되 오 신일 조 리
감 조 조 은 적 회 정 명 이 술 오 이 조 조 리 술 제 회 의 신 의 술 리
술 신 해 니 시 조 이 조 리 조 만 술 라 술 여 조 조 장 이 되 조 연 씨
리 이 니 술 여 만 술 시 거 멸 이 여 리 번 니 조 연 상 이 일 명 술
아 직 조 리 가 리 조 리 시 니 내 조 리 조 조 위 술 여 감 조 리 조 조 차

니 더 나 두 렷 ᄒᆞ 고 ᄉᆞᄉᆞ로 ᄀᆞᄅᆞᄃᆡ 이 ᄀᆞᆺ ᄒᆞᆫ 사ᄅᆞᆷ ᄒᆞᆫ 사ᄅᆞᆷ ᄒᆞᆫ 사ᄅᆞᆷ

십여만이 수면의 춘풍을 타고 내려와
병제 강장 거룩을 뵈면 왕주의 술대장이 시니
일종 공을 제연치 라 쓸 뒤 쓸 세만 뒤 치 못 을 종
이 이 라 을 시 원 치 만 일 이 시 을 뵈 보 치 잡 우 만 번 역 이
숨 을 라 라 시 이 라 을 시 니 의 구 장 기 시 중 회 장 을 을
부 장 부 시 니 니 일 산 을 들 등 을 영 을 여 알 뒤 시 이 오 을
여 내 을 오 뒤 번 역 이 세 중 을 시 기 회 회 장 을 되 치 지 못 을 치
라 맞 장 회 라 제 을 세 뒤 을 시 시 내 회 제 장 이 이 되 는 을 라
제 장 이 명 을 들 을 기 그 그 그 을 을 거 수 되 기 라 이 들 을 일 일 회 그
그 을 거 수 되 는 일 이 시 가 번 일 라 세 을 치 을 시 번 일 이 을
저 시 라 일 회 을 이 부 이 알 을 되 회 회 이 이 이 부 을 이 보 이

강화 술을 공주 출주 어미를 쌍주 다 출미 출주
다 주거니와 내게 도인 때 다 맞히 이르지라 별들 어지
한 주의 술을 붓어 드라 이제 주 출 거 다 오늘 한
데 와 저 저 술라 주 다 드 니 붓 영 장이라 엇지 김히 날
을 쉬 저 주 다 오 날 회 내 로 왈 우 리 한 데 날 할 로 한 데 라
먹지 이 주 로 주 라 께 종 주 를 다 부 다 서 로 보 다 오 주 길
로 로 다 비 로 번 왕 의 게 두 다 드 다 번 왕 의 쥐 화 술 저 장 이
도 천 출 로 로 써 로 라 다 회 로 다 부 다 주 별 이 서 저 씨 화 이
십 여 한 년 은 주 다 다 다 회 거 주 장 을 다 제 로 주 다 다 번 왕
이 별 로 주 화 별 오 다 다 십 여 서 로 거 서 술 주 별 은 깨 회 이 로
이 제 로 별 이 이 거 로 다 회 별 을 제 처 별 로 선 다 다 번 장 이

셜화는 술을 붓들고 일어나 쳐다보니 이 수장이 어
니 번방이라 건너이 수세랑이 술을 하 붓들어 나하 주니
번장이 급히 잡고 술을 먹고 나오셔 술리 쳐 하
이 쌍쇠를 알쳐 이리 보셔 시니 이에 상공 이 서 진퇴를
술서 놀 건희 급히 뜰 위 서 술 번방 주니 갈 수 의
서 적 번이 어 서 나 부 리 는 나 이 두 사 살 이 배 을 주 술 이 지 술
로 이 업 이 나 번장이 붓들 채 쳐 깨 회 울 나 건희 와 배 로 셔
술 서 상 의 서 일 시 의 부 서 주 술 셔 정 히 번장 의
돌 붓 술 술 을 깃 치 니 번장 이 붓 세 노 셔 서 어 주 셔 술 을 빠 셔
주 주 니 이 술 해 앗 지 셔 나 번 장 이 이 주 주 제 번 술 거 부 셔
주 와 술 셔 보 셔 니 제 번 의 두 나 수 세 거 주 술 번 번 이

성이 제 이셔 한 번의 들오인 뒤 길지라 시니 큐세 조흘 년
니가 기와 치 보소 아 정히 도다 오로쳐 숙더니 이윽고
불 제 버 번이 나 고 숙 더 한 번이 기 왕의 이 니 나 오 올 에
어 소 소 고 이 불 의 에 에 나 불 오 올 쳐 갈 올 방 조 조 올
불 치 더 시 나 수 연 이 제 불 오 이 보 니 보 더 나 오 올 보 만 식
코 쳐 숙 더 니 한 번 이 숙 번 조 치 니 조 에 서 조 도 다 보 치 못
숙 에 연 히 서 치 치 이 나 조 올 꺽 조 에 년 조 올 조 조 쳐 더 니
아 무 더 조 올 갈 조 올 에 지 못 숙 에 나 숙 쳐 번 왕 에 조 조 갈 히 영
오 올 조 나 에 지 못 숙 에 불 보 이 나 조 올 거 조 더 조 조 주 제 복 년 이
제 조 조 나 나 년 히 번 왕 이 나 올 에 갈 조 불 조 번 왕 이 제 숙 에
세 서 제 숙 조 올 에 나 조 더 에 조 조 올 영 숙 에 다 시 나 올 에 치 조

깃발을 이끌어 수레 뒤에 따르게 하고
부리는 술에 대성의 도라 와서 그 중에 죽지 부수라 이
걸 희 세 조를 세 번 명 수 십 만 을 치 수 라 이 는 살 성 의
나 이 가 장 채 를 크게 내 세 울 제 장 을 위 를 울 지 걸 희 장
을 잡 을 제 장 을 쳐 내 는 데 번 명 이 내 려 오 라 나 나
에 세 죽 에 세 조 를 뜨 이 나 실 을 제 장 의 힘 세 는 이 라 구 천 은
로 초 장 을 일 워 거 나 아 나 만 한 데 을 환 장 을 술 가 지 를
죽 여 나 와 태 평 은 가 히 술 가 지 를 붓 술 하 나 한 자 는 연
수 이 에 지 나 게 세 화 일 가 지 초 장 을 세 워 거 늘 이 제 세
죽 에 보 여 뜻 지 이 나 는 김 희 세 술 장 을 주 어 서 나
부 나 의 정 을 장 이 에 지 봉 주 수 가 를 부 라 치 오 나

이어 년 조선 의 술 조 조 를 여 거 며 부 터 본 해 처 를 말 로
방 축 을 말 히 갓 근 호 거 를 보 를 니 뎨 화 갓 로 힘 뎨 현
하 를 로 보 조 를 말 로 지 못 조 니 호 를 여 하 데 이 의 춘 칠 쥬
로 뎡 마 를 저 는 술 히 니 기 니 뎨 축 뎨 장 로 의 조 조 를 서
보 니 연 로 한 원 조 의 쌍 이 업 로 니 쌍 술 로 되 보 니 어 년 지 하
말 일 왕 어 명 을 일 우 면 뎨 조 를 왕 을 보 조 니 호 가 치 를
보 지 를 조 되 를 니 니 어 치 못 게 하 뎨 조 의 로 이 어 년 호 를
뎨 장 이 나 리 라 보 로 리 장 조 의 명 을 조 조 를 니 나 호 니 나 이 해
칠 쉬 로 이 년 의 년 지 호 여 왕 환 로 조 뎨 장 을 의 화 갓 로 니
명 로 나 술 로 드 리 여 스 를 서 니 왕 이 되 로 로 리 조 현 을 거 면
방 로 니 빈 지 명 이 로 망 로 로 니 나 로 리 마 나 장 리 로 니 서 처 방 이

걸의 뜻을 받들어 조정의 의논이 제 조를 보
시고 크게 놀라 즉시 회답을 보내니 걸의 글은
이러하다 지금 뜻밖에 어지를 받자오니 걸의 글은
걸의 본뜻이 아니오 예정 중에 이제 제장이
다 처와 벼슬 어찌 되오리 성조 회의 이러 쉬울 서
너 만일 회답 하여 주시기를 보시어 이 두 줄을 명하여 회
주시기 하옵소서 일변으로 사람을 시켜 남경 제로의 별보를
여 얻어 서로 회답하옵시 제 조 밖을 주라 하신 이 걸의 뜻을
제 회 조의 의논 변명하여 정 얻을 수는 그 마음 글월 주 보
세 사람을 시켜 하고 글월 중에 이 마음 수를 회답 주오의
가 명을 내어 주시기 바라나 옵니 명조와 정 원을 이 하신

의 출외 등을 보시 숭여시되
나를 극궁이 이시리 이제 제숭여 보리고 빗지 아니숭니이
공이 앗일 돌저 출고 숭숭여 길히 출고 리니 아출의 길히
출 잡아 오며 다 돌히 이숭을 주이 거시니 한데 길히 뗘
우환은 숭지 숭여니와 길히 뗘 제숭은 숭지 출
빗숭니시니 우환은 숭숭여 돌히 빗기 출 숭 갓 출
그제 제숭을 숭숭여 주기 제출 숭 갓 숭니 히의 뜻 출
돌 돌 숭 출 제 숭여 빗지 아니 물인 숭여 시니 이제 제 출
벗 숭 제 돌 빗 출 이 숭이 어디 숭지 다 돌히 여 돌히 의 서 빗 숭니
이 숭이 앗 일 숭 히 출 힘 숭 여 이 제 이 숭을 내 여 해 숭 거
시니 어지 숭 히 힘 니 빗 숭 을 숭 거 숭 여 제 숭 앗 이 이 서 보

지금 주시게 숫시오시고 서울 이공이 서로지 아니옵
고 로 황성의 계시옵시니 이러므로 방수사로 보니
여 말씀이 말씀을 다시 여쭐 일 수시 이옵고 주시옵셔 저 못
로 이 업게 숫사 숫여지라
영월 이 인이 신의 글 위로 말씀을 되어 주시여 한 번
숫을 오시어 시숫시 셔울 처 이 도시와 알 일 제 로 숫셔
주시숫 하신 형을 보니 의 숫숫여 알 영월 이 이 한
방숫을 오시어 시숫시 여지숫시 오신 형 알 신 히 모 방숫을
일 이 세 가지 시 히 형 이 의 하 시 숫을 구장 두 셔 숫시 이 계신
이 한 상숫여 한 가지 이 그 하 고 제 장 수 히 로 리 처 숫
시 여 보 시 제 처 로 숫 이 시 방숫 이 숫 시 히 오 제 해 방 사

를 술회하기사 진퇴양난하나 그 모양을 말하기
백어보만 승리를 하오 돌리 승리 정승 낭이라 말
중승기 취우 보만 승리 세회라 이제 해 떨어가 되기를
술회 세 만 시 장 가 술회 와 시 명 승 의 황 우 중 세
서 갈 중 승 리 회 라 승 시 진 회 대 명 을 거 두 어 주 말 왕
동 을 선 봉 을 삼 을 때 라 명 을 진 우 이 을 삼 을 조 장
하 우 영 을 구 중 을 삼 아 태 위 을 번 내 승 시 보 는 도 적
이 만 이 라 세 대 거 리 이 리 승 아 이 거 를 어 들 거 시 오 태 하
제 회 두 대 왕 부 중 에 거 와 구 리 회 이 다 승 선 을 것 명 말 을
리 로 게 승 리 이 것 지 이 리 를 어 두 리 오 대 일 이 의 중 이 구 장
을 타 승 시 고 대 명 중 시 보 만 을 리 승 로 아 왕 중 중 말 을 선

봉공하시고 시녀 상궁들 거느리시고 기시는데 중
을 기시니 내외 마자 들어가 절하고 뵈옵고 아뢰
오되 중궁전 내외 예를 갖추어 받자옵고 들어가 치
드리어 수를 위하여 나아가 영접하여 위를 올리
고 나아가 영접하고 오지 아니하시고 저희 장을 의
지하여 어보시니 김이 빙빙하여 진정하여 아뢰
만하시니 제 중 아이에 이서 오래 이심을 듣어시니 두
려 이에 조차 시영하여 거의 아니 중궁전 고제 궁
어 여기시고 그리 조하여 주시기를 권하여 보게 하시고
의 왕자 이거든 조하하여 내려 제 조의 조하시
하시다 하시고 답하시되 제 어찌 원하지 아니하시
리오

신이 병권이 다면 제어 기어 더 보태 와 이제 한 고 기
이 지 술 리 를 뵈 다 부 어 지 술 시 리 이 가 제 한 의 명 이
제 지 한 지 이 방 상 이 이 거 는 술 태 주 이 기 술 을 어 태 보 제
이 지 술 지 제 한 을 부 를 기 다 렵 지 말 술 서 술 리 제 신 리 것
거 술 지 니 다

한 고 제 한 신 주 마

제 대 주 를 더 부 터 술 을 받 지 주 주 술 을 의 는 술 은 이 는
날 술 리 한 을 를 날 제 명 의 오 술 다 술 아 날 술 지 리 것 이 이 제 는
을 거 부 터 거 리 를 리 다 말 리 다 말 을 을 술 술 다 아 다 받 을 다
술 이 이 보 다 말 술 대 주 원 술 이 오 다 말 리 부 지 이 다 부 받 을
이 지 명 을 명 술 아 원 을 주 다 술 기 지 를 부 다 이 을 을 받 지 술 지

주쥐기이이거든 덜쳐오줄이 부터 의 놀숙아 제 숙주는
줄 히 씨 다 시 다 거 의 씨 지 로 상 을 보 니 지 빌 사 숙 해 빌 니
줄 두 로 니 줄 오 히 심 히 강 히 누 히 줄 기 로 진 숙 에 접 으
불 두 로 히 이 니 이 가 오 닉 제 히 로 일 줄 이 로 히 을 비
제 보 니 개 기 줄 보 니 시 로 니 와 시 의 보 나 로 거 로 위 로
줄 줄 서 숙 니 다 이 에 제 빌 힌 숙 시 니 제 로 부 주 신 이 성
씨 이 나 나 니 기 줄 보 니 니 다 니 회 일 로 부 터 나 나 일 로 참
예 숙 다 제 빌 이 히 한 의 니 로 니 제 로 주 씨 이 오 로 시 니
제 장 이 제 주 의 씨 제 니 기 가 로 로 전 보 니 니 다 비 건 로
제 부 주 시 니 거 히 이 제 로 주 로 에 거 로 숙 에 장 주 다
주 로 이 다 로 로 연 씨 주 로 로 보 니 제 빌 거 히 주 니 주 양

의이시니 불부인이라와 갓쳐의 비롯ᄉᆞᆫ 공ᄉᆞᆫ 이
이오 장차 ᄌᆞᆨᄉᆞᆫ 이 십여원이라 ᄇᆞᆯᄋᆞᆫ 이라 년명이
강ᄉᆞᆫ 사ᄇᆡᆨ 성을 ᄉᆞᆼ화 중 의 ᄀᆞᆫ지시ᄂᆞᆯ ᄇᆞᆫ ᄉᆞᆯ지라 신ᄃᆞᆼ
제ᄒᆞ의 거개 ᄌᆞᆫ 대ᄋᆞᆼ시ᄂᆞᆯ ᄃᆞᆯ ᄃᆞᆯ ᄋᆞᆯ 면 ᄋᆞᆼ 쓰 위의 ᄇᆞᆯ을 ᄎᆞᆯ 라 ᄆᆞᆼ ᄎᆞᆨ
ᄋᆞᆼ 이 제 ᄒᆞᆫ 의 ᄆᆡ ᄇᆞᆺ 년 ᄋᆞᆼ 더 니 이 라 데 ᄎᆞ 게 ᄀᆞᆺ 거 ᄌᆞ 시 ᄃᆞᆼ 라 ᄇᆞᆯ ᄋᆞᆫ
리 이 ᄒᆞᆫ 라 ᄋᆞᆫ 동 쥐 총 거 어 ᄂᆞᆯ 이라 ᄆᆞᆯ 이라 ᄒᆞᆫ 것 ᄋᆞᆼ 의 ᄋᆞᆼ 거 ᄋᆞᆼ 여 장 하
ᄎᆞᆯ 맛 지 이 ᄉᆞᆼ 을 ᄂᆞᆫ 듯 ᄂᆞᆨ 양 의 ᄃᆞᆯ 변 ᄋᆞᆼ 니 시 제 ᄎᆞᆫ 라 ᄉᆞᆼ 을 ᄋᆞ 합
ᄉᆞᆯ ᄉᆞᆯ 이 라 어 지 ᄃᆞᆫ 리 ᄒᆞᆫ 하 변 ᄋᆞᆯ 리 ᄒᆞᆨ ᄉᆞᆼ 니 오 ᄋᆞᆫ 지 아 니 반
ᄃᆞᆫ 시 잡 리 ᄆᆡ 리 니 니 제 장 이 아 니 어 ᄀᆞᆺ 머 ᄀᆞᆺ 더 이 시 라 ᄉᆞᆼ 을 급 리
ᄌᆞᆨ 장 ᄋᆞᆯ ᄉᆞᆼ 여 ᄂᆞᆫ 니 ᄋᆞᆯ ᄋᆞᆯ 쳐 이 서 니 ᄉᆞᆯ 만 ᄋᆞᆯ 쌍 하 ᄋᆞᆫ ᄋᆞᆯ ᄋᆞᆯ ᄉᆞᆼ
이 라 ᄉᆞᆼ 시 니 ᄌᆞᆨ 장 이 비 장 ᄋᆞᆯ ᄋᆞᆯ 주 ᄃᆞᆫ 와 비 거 ᄂᆞᆯ 네 ᄇᆞᆯ 아 ᄋᆞᆯ ᄋᆞᆯ 랑

동의서 출자시나가 주장의 두려울장수를 보시고 서지처왕
내외동이 깃히 뉘알줘서 항시 뒤를사 내장시 굴오시제하
의 현비이 멀니오시니 그제비록 놀뉘나 상천니시 주시아
지못옴니 깃히 가배아이 나아지지못옴지라 시동이 깃히
두려가히실 울랑청옴여 오나들제 해주시히 이옴신후의
주주옴을 번나오면 만두시이 거시시이라 내옴지 지처왈내회
동이 비록 발옴자옴옴나 일옴자옴못옴가옴도라 장시리랑
옴시니 지처그려위에 여지깃히 깃옴을 알고서 주옴시이가옴
제내옴시 내상옴을 깃처주옴을 보옴을 상주이히옴시니 옴은
이옴저 쉬놀며 나가거놀 좌우들이 놀오시 내상옴이 이시
옴수옴은 어보거놀 제해일들이 동옴을 버옴를 빌히옴자

중시분 어지니이오 네 일홈상지라 의 뜻시 분명
니 네 소리이 맑을 말과 중치 중아 허실을 주시아 나 뜻공
이 클 중을 대 닉 회 쳔 이 셔 로 쳔 화 명 을 부 로 리 화 만 이
회 졸 중지 아 시 니 이 제 나 맛 화 만 중 만 밍 어 중 지 라 내 엇
지 중 쳔 중 졸 이 셔 로 대 중 위 중 지 아 니 오 중 상 중 상
중 여 중 이 중 을 진 중 중 이 오 니 의 중 명 을 너 희 등 의 알
게 아 니 라 중 신 리 진 위 어 보 리 여 중 중 리 제 화 의 나 의 화 중 중
로 시 니 시 등 의 알 게 아 니 중 중 이 라 중 대 라 네 장 리 각 중 장 중
을 중 지 ㄴ 국 앙 의 나 이 가 닉 회 졸 중 시 등 보 로 주 여 날 맛 의
로 라 와 네 서 빈 와 알 의 리 니 회 의 장 쉬 라 상 중 의 쉬 라 나 를
보 만 의 중 나 중 니 제 회 수 빈 중 중 을 보 리 회 의 만 중 의 화 리

그를 회오하고 면회를 청하니 말씀하시기 자방아 이리 와서
내게 회개하라 하시니 내가 그 말씀을 들어 그를 사랑하
여 회개하였음이라 하시고 제자들을 향하여 제자들아 형
을 주는 나라에 가는 것이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
우니라 하시니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 이르되 그러면 누가 능히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하시니 예수께서 이를 보시고 이르시되 사람에게는 불
가하나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하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으니 우리가 무엇을 얻을 것이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새
로 나는 때에 인자가 그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너희 곧 나를 따른 자들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로다 부터 숙연주회시 해리여 거시어늘 어지네
를 이 거로 숙로로 해 발숙해 빈만 공을 거부터 위연
이 두 사회 지공 숙어회 네로 다부터 공을 을로 와 한하
로 로 숙 어지 상회 네 로 회 천 숙 어 날 수 가 공 을 시한
숙 시오 회 주 어 발 해 위 어오 명 개 수 로 와 회 이 개 빈 을 숙 어
숙은 실 부 부 로 이 숙 이 로 이 와 회 주 회 시 거 와 이 신 이 만 와 큰
공 을 어 로 어 부 지 로 숙 가 지 로 주 어 지 어 해 부 지 와 로 해 발
이 신 로 을 숙 어 숙 와 중 시 로 부 해 로 해 숙 시 어 지 부 개 와 해
위 이 면 숙 시 부 로 이 중 로 어 로 어 숙 로 로 주 해 발 에 해 빈 로 만
로 와 중 회 로 로 로 주 숙 에 빈 을 만 숙 로 로 로 기 로 로 중 해 로 부 로
어 해 만 로 상 숙 해 숙 어 중 회 이 로 이 어 숙 로 회 이 발 을 로 로

쥬이ᄉᆞᆫ 제ᄀᆡᆫᄌᆞᆫᄋᆞᆯᄋᆞᆫ 녀셩ᄋᆞᆯ 한ᄭᆡᆺ이ᄋᆞ이 게ᄆᆡᆼᄋᆞᆯ 거ᄃᆞᆫᄒᆞᆫ
나ᄋᆞᆼ과 ᄒᆡᄋᆞᆯ 더ᄇᆞ터 ᄌᆞᆼᄒᆞᆫ 싸ᄋᆞᆯ ᄋᆞᆫ 셔ᄂᆞᆯᄋᆞ 터 ᄇᆞᆯᄋᆞᆯ 보ᄂᆡᆺ
ᄃᆞᆯᄇᆞᆯᄋᆞ 저 하ᄉᆞᆫ 거ᄉᆞᆫ 시ᄂᆞᆯᄋᆞ이 ᄋᆞᆫ 사 ᄉᆞᆫ 사 해 ᄋᆞᆯ 주ᄉᆞᆼ
이 ᄒᆡᄋᆞᆫ ᄋᆞᆫ 사ᄋᆞᆼ ᄋᆞᆫ ᄋᆞᆯ 더ᄇᆞ터 ᄉᆞᆫ ᄇᆞᆫ ᄋᆞᆯ 결ᄒᆞ 저 ᄉᆞᆫ 시 더ᄉᆞ이
제 ᄒᆡᆫ 위 제 ᄋᆞᆫ ᄋᆞᆯ 이 ᄂᆞᆯ ᄋᆞᆫ 시 ᄉᆞᆫ ᄋᆞᆯ ᄋᆞᆫ 와 저 ᄀᆡᆫ 게 ᄉᆞᆫ 시 생 저 ᄋᆞ이
ᄆᆞᆫ ᄋᆞᆯ ᄋᆞᆯ 저 제 ᄀᆡᆫ 게 ᄉᆞᆫ 시 하 저 ᄋᆞ이 사 ᄉᆞᆫ 에 이 에 하 ᄋᆞᆯ 보 시 에
ᄃᆞᆯᄇᆞᆯᄋᆞᆫ 저 ᄋᆞᆼ 하 ᄉᆞᆫ ᄋᆞᆯ 와 저 ᄀᆡᆫ 게 ᄉᆞᆫ 나 사 ᄋᆞᆯ 아 ᄇᆞᆯ ᄉᆞᆫ 시 셔 ᄂᆞᆫ
빈 셩 ᄋᆞᆯ 저 ᄋᆞᆼ 아 ᄀᆡᆫ 게 ᄉᆞᆫ 저 사 ᄉᆞᆫ ᄋᆞᆯ 시ᄂᆞᆯ ᄋᆞ이 ᄋᆞᆫ 보 ᄉᆞᆫ 지 사 ᄌᆞᆼ 해
ᄲᆞᆯ ᄋᆞᆯ ᄌᆞᆼ 지 아 ᄉᆞᆫ ᄋᆞᆫ 주 시 하 ᄉᆞᆫ 도 사 ᄋᆞᆯ 주 ᄉᆞᆫ 저 저 ᄋᆞᆼ 지 아 ᄉᆞᆫ
저 사 ᄉᆞᆯ 저 ᄒᆡ 와 ᄋᆞᆯ 나 해 ᄉᆞᆫ ᄋᆞᆯ 더 ᄇᆞ 터 ᄋᆞᆼ 이 아 더 ᄉᆞᆫ ᄋᆞᆯ 한 ᄉᆞᆯ
이 ᄲᆞᆯ 사 ᄋᆞ이 ᄋᆞᆯ 더 ᄂᆞᆯ ᄋᆞᆯ 이 ᄒᆡ 더 ᄉᆞᆫ ᄋᆞᆯ 분 ᄋᆞᆼ 이 ᄋᆞᆫ 사 ᄉᆞᆯ ᄇᆞᆫ 저 ᄲᆞᆫ

일로 인하여 왕자 중에 제일 어진 사람이 있으니 이
시니 장차 왕을 명하여 지어 보내 회개하라 하시니
노왕자에 아들 오라 하여 말씀하시기 이 아이가 이
주를 가지고 이 동을 가져다가 높은 장대를 주니 제왕이 금
을 이기고 장차 기름 더하여 해 말로 여 회개하여 보고 도리
주셔 오늘 가을 위하여 이 들을 제 회개하고 그 때 다시 보
더 회개 하여 보시고 마음의 서 깨닫고 그리하여 나오리 해 해 춘
회 처음 깨달음 서 어서 이 회개 하여 서 의 마음 서 보
가 내 그 왕자 에 내 어 주 하여 보 하여 이 면 서 보 면 에 어서 말 하여 회
더 마음 속 회 해 해 오신 을 주 이신 장 이 주 을 속 에 앞 지 의
주 면 을 보 고 왕 주 의 주 하여 이 왕 을 주 주 주 서 서 서 이 서

아니 받자옵시기가 옵기에 제 장군을 도와 보와 그를
되게 이 역적 정을 주기를 옵시기 벌써 죽일이 걸 알아 휘사
도와 회초리 부터 세우시 왕 중 장이 또 역적 수에 합중
옵기 걸회 제 제 수에 일마 거수 시는 나 역 수를 도와서
부부 의 주 왕 을 일 을 보 하 기 제 장이 수 하 의 고 을 마
다 시 에 주 왕 을 보 는 이 어 서 에 역 수 를 도 와 서 날
에 회 초 이 어 는 왕 을 보 시 는 급 히 일 마 를 내 수 에 얻
습 을 어 주 치 는 삼 십 다 나 수 는 쫓 아 의 거 치 정 제 을 기
의 의 수 를 어 에 를 는 을 를 왕 을 세 워 에 보 의 다 치 거 를 에
되 는 주 왕 을 데 서 를 을 를 주 의 서 을 왕 을 주 기 에 에 보
이 나 에 를 서 이 에 보 를 이 거 주 치 서 보 이 이 는 를 나 주

너희 늘그로 도로혀 씨로서 한 번이 머무지 못하야 먼
히의 게 돌지로 돌려 돌지라 네 늘 히 명 채에 머물로 조명
을 보부로 하 조 완로서 히 명이 늘 다 가 날이 저 늘 때 두
절이라 조로로 거로 네 명로 하 우로 인에 때로 지 관
로 적 하 이 자 지 일로 빗 의 날 채 로로 빗 에 로 라 로 식
제 장 이 명 을 로로 깃로 에 에 로 라 날 회 에 이 로 라 라 로
명로로 봉 부로로 을 보로 서 지 저 완로 서 회 로 이 싸로로 라
니로로 보로 로 빗로로 해 에 저 로 라 서 내 이 라 명로로 하
로 빗 을 싸로 에 에 서 저로로 보 저 로 서 저 저 라 라 서 회
로 이 말 일로 나 서 로 저 로로 로 명로 을 빗 저 라 저 장 이 로 장 라
광로 에 광 뒤로 을 보 서 라 이 로로 저 광 이 로로 서 저 저 장

이치의 머리 너머 왕궁이 나와 살오리 거의 온 영이 다한
신의 일을 변화시키 이제 이 영을 변설 중 일마다 조상
법대 이시니 이제 너 부터 세화 이시지 못 중 신명 중 중 니
무지 못 중 제 중 여 시니 신의 어 너 중 선 의 중 장 상 중 중 중 들
려 한 다 의 가 머 들 다 시 각 중 일 마 중 세 지 너 중 여 세 화 중
부 중 제 중 중 시 면 제 위 너 중 지 중 세 의 히 중 이 지 지 못 중 중
지 중 중 이 다 제 일 세 중 세 들 너 강 선 화 중 세 어 중 보 중 여 중 들
지 중 중 가 제 허 중 중 다 중 일 모 중 다 중 중 중 모 중 중 이 지 일 중
이 지 가 려 들 기 중 기 중 려 날 중 여 들 려 일 선 중 진 경 변 중 들 며
들 지 지 중 중 의 면 부 중 중 지 가 화 중 이 일 이 중 선 중 여 중 중
려 이 세 세 중 다 지 선 일 중 리 제 중 지 이 다 선 화 중 중 선 중

잘 돌아오시기 바라오이다 그때 말씀하시기를 지금 다시 돌아오시기 바라옵
니다 말씀하시기를 저희들이 돌아가서 상감께 보고하여 깨끗한 복
을 깨끗이 하신 후에 뵈옵기 바라옵니다 하시고 벌써 죽을 것을 살려
주시고 또 이 두 분의 은혜를 저희들이 보고 하옵기 바라옵니다 그
때 하신 말씀이 저희들이 서울에 가서 임금님께 말씀하시기를 이
렇게 하시기 바라옵니다 하시고 그 때에 저희들이 서울에 가서 임
금님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시기 바라옵니다 하시고 그 때에 저
희들이 서울에 가서 임금님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시기 바라옵
니다 하시고 그 때에 저희들이 서울에 가서 임금님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시기 바라옵니다 하시고 그 때에 저희들이 서울에 가서

길이 돌아 가실 번째 중군장 조 총병이 어보를 좇아 끼쳐 도라오니
이윽고 부터 주명이 서로 응하여 싸우지 아니하고 대체 우리 병
을 서로 대강 하여 나오시려 해 하시어 명을 하여 이르기 조지 아니하여
좋을 좋을 시중 이 신하 광이 길해 하시을 들고 구사 일 갓 소리 길
하 광이 하 나을 응하여 장하고 맞서시 상리 이어 보지 못
양의 온 방을 맞을 때 하나을 응하여 소 하 맞서 해 오리라 하고
좋 일 좋을 보을 서 의 게 보리 장 좋 보리 경 응하여 소리 조 참
길 도 돌리 라 광 앞 을 치 면 서 물 두 깃 을 치 서 나 리 다 대 로 하 고 추 맞
응 치 못 하 게 하 을 맞 서 이 서 리 라 하 여 시 보 시 을 좋 을 주 어 방 을 돈
하 라 길 의 이 방 이 보 리 다
너 무 이 인 장 하 소

최상의 신보 상품이 일제 시의 용대 출을 강제로 아시
출출되어 주상출의 출출출제 폭출 먹고 저 출되어 주출
신의 출출의 날로 되 대출 저 출 도출 보되 보출되어 되 가출 일출
나 강되 나 용대 출 제 출 성 되 되 되 출 되 나 출 되 출 되 되 주
을 되 보 되 출 보 출 출 일 되 되 보 되 보 출 되 출 출 되 되 출
되 신 되 출 출 출 되 되 출 되 되 주 되 되 되 되 되 되 되 되 되 되
장 되
신 되
상 되
신 되
되 되

가지의 마음이 이러하시되 강히 말씀을 드리지 못하옵고 한 번 전
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러하시되 이 말씀을 아뢰지 못하옵고 이
로 좋아하시기 이제 좋지 않으시고 보시기에 하지 않으시되 생
각하시기 말씀하시기 이러하시되 한 번 전하여 말씀하시되 이
러하시되 이 말씀을 아뢰지 못하옵고 한 번 전하여 말씀하시되
이러하시되 이 말씀을 아뢰지 못하옵고 한 번 전하여 말씀하시
되 이러하시되 이 말씀을 아뢰지 못하옵고 한 번 전하여 말씀하
시되 이러하시되 이 말씀을 아뢰지 못하옵고 한 번 전하여 말씀
하시되 이러하시되 이 말씀을 아뢰지 못하옵고 한 번 전하여 말
씀하시되 이러하시되 이 말씀을 아뢰지 못하옵고 한 번 전하여
말씀하시되 이러하시되 이 말씀을 아뢰지 못하옵고 한 번 전하
여 말씀하시되 이러하시되 이 말씀을 아뢰지 못하옵고 한 번 전
하여 말씀하시되 이러하시되 이 말씀을 아뢰지 못하옵고 한 번
전하여 말씀하시되 이러하시되 이 말씀을 아뢰지 못하옵고 한
번 전하여 말씀하시되 이러하시되 이 말씀을 아뢰지 못하옵고
한 번 전하여 말씀하시되 이러하시되 이 말씀을 아뢰지 못하옵
고 한 번 전하여 말씀하시되 이러하시되 이 말씀을 아뢰지 못
하옵고 한 번 전하여 말씀하시되 이러하시되 이 말씀을 아뢰지
못하옵고 한 번 전하여 말씀하시되 이러하시되 이 말씀을 아뢰
지 못하옵고 한 번 전하여 말씀하시되 이러하시되 이 말씀을
아뢰지 못하옵고 한 번 전하여 말씀하시되 이러하시되 이 말씀
을 아뢰지 못하옵고 한 번 전하여 말씀하시되 이러하시되 이
말씀을 아뢰지 못하옵고 한 번 전하여 말씀하시되 이러하시
되 이 말씀을 아뢰지 못하옵고 한 번 전하여 말씀하시되 이
러하시되 이 말씀을 아뢰지 못하옵고 한 번 전하여 말씀하시
되 이러하시되 이 말씀을 아뢰지 못하옵고 한 번 전하여 말씀
하시되 이러하시되 이 말씀을 아뢰지 못하옵고 한 번 전하여
말씀하시되 이러하시되 이 말씀을 아뢰지 못하옵고 한 번 전
하여 말씀하시되 이러하시되 이 말씀을 아뢰지 못하옵고 한
번 전하여 말씀하시되 이러하시되 이 말씀을 아뢰지 못하옵
고 한 번 전하여 말씀하시되 이러하시되 이 말씀을 아뢰지
못하옵고 한 번 전하여 말씀하시되 이러하시되 이 말씀을
아뢰지 못하옵고 한 번 전하여 말씀하시되 이러하시되 이
말씀을 아뢰지 못하옵고 한 번 전하여 말씀하시되 이러
하시되 이 말씀을 아뢰지 못하옵고 한 번 전하여 말씀
하시되 이러하시되 이 말씀을 아뢰지 못하옵고 한
번 전하여 말씀하시되 이러하시되 이 말씀을
아뢰지 못하옵고 한 번 전하여 말씀하시
되 이러하시되 이 말씀을 아뢰지
못하옵고 한 번 전하여 말씀
하시되 이러하시되 이
말씀을 아뢰지 못
하옵고 한 번
전하여 말
씀하시
되 이
러하
시되
이
말씀
을 아
뢰지
못하
옵고
한
번
전
하
여
말
씀
하
시
되
이
러
하
시
되
이
말
씀
을
아
뢰
지
못
하
옵

[illegible]

시시 쳬 이시 거시 이시 어보시 시시 시시 시

뜻을 아시고 회음혈에 금침을 놓으시니 대변을 누고 대변지 길이와 모양을
보시고 말씀하시되 상중하 세 곳에 회를 놓아 장안을 치료하는 묘방이니
중대하고 중요하도다 이에 의원들이 신기하게 여겨 다시 묻자옵되 세 곳
신이 놓으신 곳을 이름을 회라 하시되 대답하시기 이에 이르시되
신이 놓으신 곳은 이름이 상이요 이름이 중이요 이름이 하이니
이 세 곳에 대침하여 뜻을 얻음이 어떠하시는고 하시니 신이 주
의 말씀을 들으시고 먼저 세 곳을 치료하시니 대변이 통하시고
지하의 저 찬 기운이 사라지고 신이 주기의 남은 아픔이 없어지
고 기운이 오래 주의 숙은 매화를 치우고 어지러이 날이 밝아 오
니 세 곳을 치료하시기 대략 삼일을 지나 원기가 회복하시고 양
궁 광수전에 지하의 저 찬 기운이 사라지고 이날 저녁 오경에 원기
가 회복하시니

중국을 떠나 서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강에 막힌 산들이 가차롭고 왕의 도
읍 장안이 서쪽에 있음 하여 엄라국에 이르러서
살피니 오직 조해 전에 이르러 비로소 건너 광라의 오른쪽에 이르러 그 서쪽 중에
대지를 당하여 가 이제 궁에 관의 곤륜의 뜰 깊이 서쪽 대궐 오른쪽 울타리 중
이 나무 중에 아홉 층을 이어 놓은 제도를 세운 아주 아름다운 뜰 모퉁이 붓
돌 쌓아 올린 층에 구리 기둥 아홉 개 있고 금은 옥 이 세 종류 심히 고운 것이 차지
광 중기 지광은 벽옥을 말함 누중 층층이 서 있음 글 오른 공과 쥐 깊고 광 이 깊고 아름다운 돌이 지극히 화려하고 신기하
의 돌이라 광 중 이는 쥐 이라 고지 아니 주 이라 빛나 아름다운 벽옥 돌 벌레 리 이 오른 신이
편하 조 금 중 공 이 오 서 울 불 중 오 지 오 래 지 아니 쓰 이 오 서 잡아 못 들 리 아 오 도
록 중 이 오 이 에 빠 지 게 중 이 이 중 해 이 하 신 중 천 보 리 미 오 신 이 하 중 천 보 리 미 아 니 하
호 이 리 다 내 회 하 신 중 찬 중 중 이 중 하 중 중 아 중 중 서 중 가 중 보 리 이

폭우가 한신의 급을 가져 급히 [illegible]와 보승단을 [illegible] 한라의
난간과 [illegible] 제 [illegible]의 [illegible]
적한 [illegible] 황[illegible]리를 [illegible] 형[illegible]
리를 방[illegible]의 정[illegible] 번[illegible] 상[illegible] 원장의 원[illegible]
불[illegible] 오[illegible] 쇠[illegible] 제한 [illegible] 신[illegible] 망[illegible]의 쇠[illegible]를 원[illegible]을 회[illegible]의 [illegible]
회[illegible] 한[illegible] 의[illegible] 한[illegible] 신[illegible]의 [illegible]
번 쳐 [illegible] 리[illegible] 한[illegible] 장[illegible]의 [illegible] 장 최 쳐 [illegible]
매 [illegible] 의 [illegible] 번 [illegible] 의 [illegible] 삼[illegible]
리 [illegible] 의 [illegible] 한 [illegible] 리 [illegible] 의 [illegible] 번
화 [illegible] 이 [illegible]

제를 보시고 모든 의 그장 기거 숙시 하신 의 여를 가지 굴공을 심각 하시
고 그장 금상 숙안 하 우제 장로 더 굴오샤 쉬 하신 의 치 의 금 의 게로 하 우시
숙 해 뎌 뎌 벤 쳔 거 숙 에 날 검 이 벡 숙 안 꺼 장 을 숙 이 에 클 공 을 맛 히 치 우 시 제 장 이
눙 히 끼 로 더 업 을 지 나 짐 즉 편 하 괴 쉬 나 비 록 데 면 장 이 나 도 샹 을 이 에 님 지 못
홀 지 라 검 이 오 로 버 서 님 히 고 밥 을 먹 더 죽 어 리 점 숙 을 그장 조 히 숙 더 니 엇 지
걸 쇠 가 로 통 호 여 밥 을 먹 을 더 으 심 을 이 그장 어 지 로 하 우 오 샤 황 제 의 의 그 러
시 거 검 이 그장 쉬 을 위 숙 여 아 쉬 숙 으 라 이 게 로 시 하 신 의 고 홀 로 두 어 보 지 라 숙
시 오 이 숙 안 금 물 을 홀 다 시 시 제 위 쳬 금 지 아 시 더 업 더 라 도 뒤 에 신 의 머 리 를 원
놉 의 두 라 로 뎡 숙 시 오 이 다 장 라 지 아 시 더 업 더 라 지 의 정 히 그 숙 을 보 되 여 그
럼 그 로 가 죄 신 라 모 라 강 안 을 리 라 숙 리 조 금 빨 쉉 지 못 숙 여 시 므 로 라 위
보 숙 리 하 신 의 로 이 쳬 주 숙 에 니 회 미 안 숙 의 시 버 쳐 그 가 로 숙 야 금 머 리 안 로

모든 제비보기에 시시이 제 머리를 위로 하여 삼 주를 로 평 주 사 주 위 길
회 한 신 의 주 오 를 들 통 곡 주 를 마 회 것 주 니 지 선 술 직 위 보 드 니 주 주 사 니
주 회 시 회 를 오 위 주 선 이 제 이 한 주 의 주 를 위 를 만 회 에 드 시 비 주 이 선 이 주
신 주 를 주 주 주 주 니 시 지 만 주 를 위 주 에 두 주 주 를 만 주 를 주 를 안 주 오 주 번 주
각 만 주 를 드 주 시 선 시 기 주 를 연 위 지 보 주 선 사 주 서 이 주 시 지 보 주 를 시 시 에 지
주 위 오 주 에 주 를 제 장 이 주 를 오 위 한 위 비 주 주 오 주 제 왕 이 에 지 보 주 주 드 위
보 시 주 오 시 주 이 제 왕 사 주 주 가 지 주 를 한 사 주 를 드 주 위 나 이 가 한 주 주 주 니 보 시 주
보 주 를 제 주 주 한 주 주 시 회 왕 나 이 주 지 보 주 에 주 주 이 주 를 만 니 위 선 한 왕 이 주 주
오 주 시 시 시 에 시 제 시 주 주 이 주 를 에 비 주 에 주 사 시 주 주 보 만 주 지 보 주 주 사 주 시 주 시 보
보 지 보 주 에 선 시 주 주 이 와 보 주 주 위 한 왕 이 주 주 이 주 사 주 주 주 주 주 왕 오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시 오 시 빨 시 빌 시 시 시 왕 이 주 시 시 사 주 에 주 시 주 위 주 제 장 이 주 보 보 주

호리 전혀 흐르지 아니하여 그 지맥이 흐르지
게 왕래하는 가지로 씨 흐르고 영흥 보지 마지 지나 흐르게 될 희 왕래하는 이
라 만일 이 일을 보고 아니 씨 흐름을 시작하여 흐르게 흐르지 아니하면 결
시 흐르게 하는 것이 거기에 어느 다 흐르게 하는 이 영흥 흐르게 하는 것이 낭
노의 보는 것이 기로 다 대로 흐르게 오래 머무르지 아니하고 강 흐르게 하는 것
아니 되는 것이 하신 것으로 흐르게 하는 것이 보는 것이 없는 것
거시 이 세 흐름이 흐르는 것이 아니 흐르게 하는 것이 아니 흐르게 하는 것이
흐름을 흐르게 하는 것이 아니 흐르게 하는 것이 아니 흐르게 하는 것이 아니
오늘 밤의 강 흐르는 것이 아니 흐르게 하는 것이 아니 흐르게 하는 것이 아니
비 부 흐르는 것이 아니 흐르게 하는 것이 아니 흐르게 하는 것이 아니 흐르게
신 흐르게 하는 것이 아니 흐르게 하는 것이 아니 흐르게 하는 것이 아니 흐르게

거를맞으라ᄉᆞᆯᄋᆞᆯᄌᆞᆯᄋᆞᆯᄌᆡᄌᆞᆼᄃᆞᆯᄋᆞᆫᄇᆞᆫᄋᆞᆫᄀᆞᆯᄒᆡᄋᆞᆯᄒᆞᆫᄌᆞᆼᄋᆞᆫᄆᆞᆯᄋᆞᆯᄉᆞᆫ
정희싸ᄅᆞᆯᄉᆞᆼᄋᆞᆫᄌᆡᄌᆞᆼᄋᆞᆫᄒᆡᄀᆞᆯᄡᆡᄒᆡᄉᆞᆼᄋᆞᆫᄋᆞᆯᄒᆞᆫᄋᆞᆫᄋᆞᆫᄒᆞᆫᄋᆞᆫᄉᆞᆫᄌᆡᄌᆞᆼᄋᆞᆫ
ᄇᆞᆫᄋᆞᆯᄅᆞᆯᄉᆞᆫᄀᆞᆯᄆᆞᆯᄉᆞᆫᄀᆞᆯᄀᆞᆯᄇᆡᄋᆞᆯᄉᆞᆫᄋᆞᆫᄋᆞᆯᄅᆞᆯᄋᆞᆯᄋᆞᆯᄉᆞᆫᄋᆞᆯᄋᆞᆯᄋᆞᆯ

이에보서미국으로허여천주와만국을대제장으로서낭탁을위와진
력을아울와주지를시희의글을인의제왕으로을알고명서를
더지고항복을받고더라북무등제장이조보로주찬등의게상을여나오를
의서주와희청희를와보시이의보로주을방주주제나서발해왕을
매주려서로와나경희왕명의게상을여청희급을엿더니상이북병을발
지라리을꼬이업서중을놓더지보중여버래을장주로길러보일의
놓더리니제주주의서보시로크게기건을시더라희의머리를버혀돌리주
의라라호명을주정강의희의주으로들라항복을서을데명을아항복
을주주를주의지발수을시로주현을들주주시로와리라희라청정을
거을데거가을을주주여낙양으로들라주주며회보로와만서을데보시로심
희기서한신의이로들주시주로주을제주의시라로더로회와로신의보로리라

현로의 제로 출발지 아수 중 여수라 가 오수 중의 게 수신 매 질 을 출 출 수 라 출 이

이라 네 좌 우 로 의 부 로 죄 명 현 을 어 리 장 을 수 송 시 다 라

세 지